

비정규직권리지킴이사업 활동보고서

---

대전광역시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생활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2018. 8.

---



**대전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www.djiw.or.kr](http://www.djiw.or.kr)



## 대전광역시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생활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내며

2018년 노동인권 지킴이 사업으로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생활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센터는 계층별, 직능별 실태조사를 여러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층별, 직능별 실태파악 뿐만 아니라, 지역별 조사도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역별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어떠한지, 또 같은 지역의 노동자들은 어떤 생활욕구들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해 보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산업단지가 몰려 있는 대덕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대덕구는 오랫동안 전통적인 노동자 밀집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격차 등 지역적으로 소득격차와 교육격차 등이 벌어지면서 대덕구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의 변화와 실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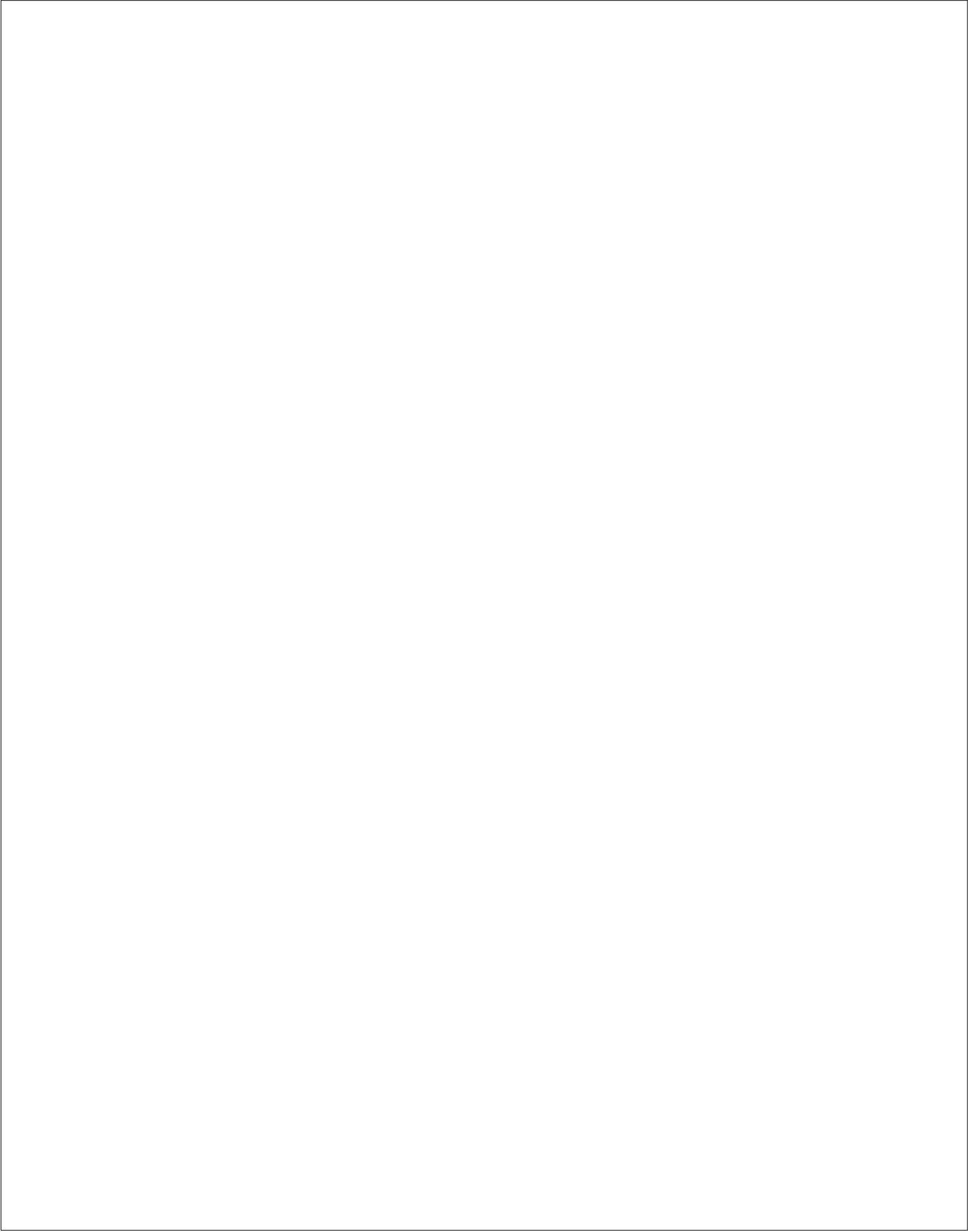
이에 전통적인 노동자 밀집지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생활환경의 실태를 파악하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을 찾고, 대덕구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욕구 조사를 통하여 노동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마을에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사가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생활환경 개선과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조사의 결과가 대전광역시와 자치구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반영되어, 대전지역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기여될 수 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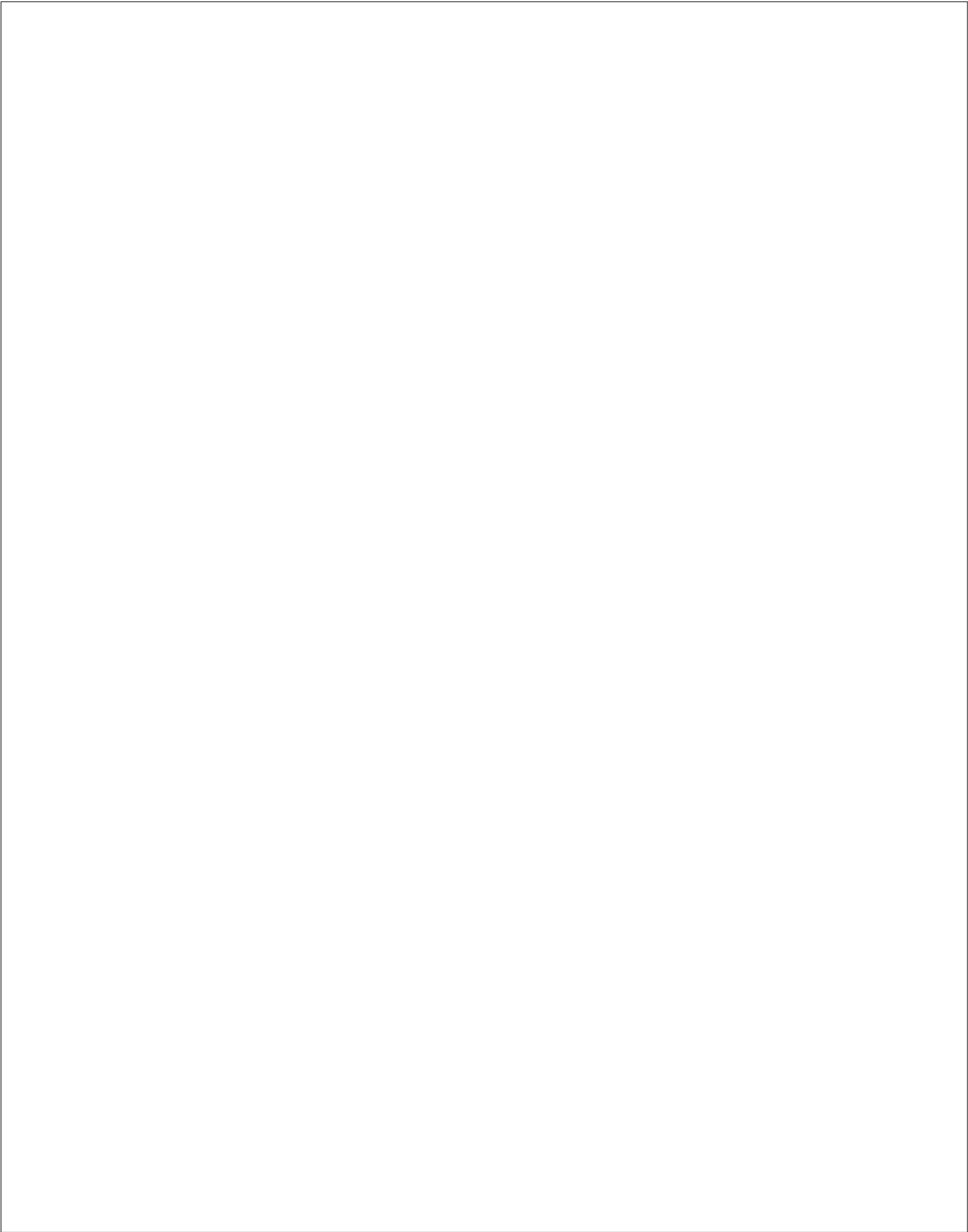
2018. 8. 29.

대전광역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 홍춘기



## 목 차

<b>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b> .....	<b>5</b>
1. 연구 배경 .....	5
2. 연구 대상 .....	5
3. 연구 방법 .....	6
<b>2장 노동환경&amp;생활욕구 조사결과 분석</b> .....	<b>7</b>
1. 기본조사 결과 .....	7
2. 근로환경 결과 .....	13
3. 자녀돌봄 및 교육에 결과 .....	20
4. 생활욕구에 대한 결과 .....	22
5. 기타사항에 대한 결과 .....	26
<b>3장 응답자 지역별 간담회 결과 분석</b> .....	<b>33</b>
1. 지역별 간담회 진행 .....	33
2. 간담회 진행순서 .....	33
3. 지역별 간담회 내용 .....	33
<b>4장 정책 대안</b> .....	<b>35</b>
1.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	35
2. 생활욕구에 대한 대안 .....	36
3. 대덕구 노동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안 .....	37
4.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 .....	39
<b>5장 활동자료</b> .....	<b>41</b>
1. 조사원활동후 소감 .....	41
2. 활동사진 .....	45



## 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 1. 연구 목적

첫째. 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환경과 생활 욕구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전지역 노동자들은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없이, 영세사업장과 중·소규모 사업장의 차이 없이 저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위하는 정도의 저임금을 받고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상담이 많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직업에 구분 없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었다. 또 노동현장에서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과 욕구를 파악해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둘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노동환경과 생활욕구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노동인권 보호와 개선 방향을 찾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과 방향까지 함께 모색하고자 하였다.

셋째.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네트워크구성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율은 10% 안팎이며, 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조 조직율은 2-3% 수준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의 경우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이해대변과 역할을 할 단체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별 노동자 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찾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한 사업이다.

### 2. 연구 대상

대덕구 주민으로 직장에 다니는 모든 노동자 (공무원, 공사 직원, 대기업 정규직 제외)

다만 지역별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생활욕구가 상이할 것으로 보고 2018년에는 대덕구를 먼저 조사하였다. 대덕구는 영세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제조업 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대전시 5개구중에 먼저 조사를 진행하였다.

### 3. 연구 방법

- 사전준비회의
  - 2월 9일 1차 준비회의
  - 2월 23일 2차 준비회의
- 우리동네 노동찾기 설문지 작성 (3월)
- 우리동네 노동찾기 (500명찾기)- 인권지킴이단 20명 모집
- 지킴이단 교육
  - 4월 10일 1차 교육
  - 4월 11일 2차 교육
  - 교육 내용 ; 노동인권 교육 및 실태조사 진행방법 안내
- 지킴이단 중간점검 회의 5월 14일, 15일
- 총 502명 실태조사 인원 (4월 - 5월)
- 실태조사 결과 코딩 및 분석 (6월)
-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간담회 (7월)

	지역	장소	참석인원
7월 4일	비래동간담회	꾸러기어린이도서관	12
7월 5일	송촌동.법동간담회	자연드림 송촌점	20
7월 9일	중리동.오정동 간담회	민들레병원	19
7월 11일	신탄진 간담회	3대째손두부	5
7월 16일	대화. 회덕 간담회	대화동	6



## 2장. 노동환경&생활욕구 조사 결과 분석

### 1. 기본조사결과

총 응답자는 502명으로 기본인적사항부터 살펴보면, 성별로 여성이 325명 남성이 173명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65%, 남성이 35%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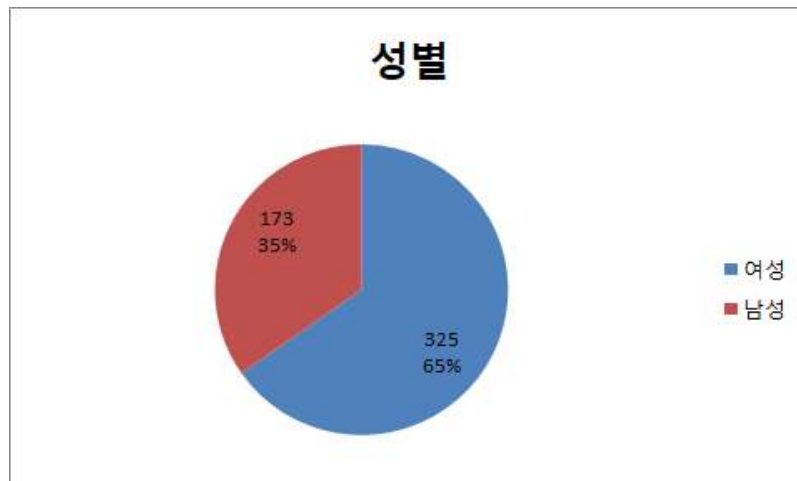


그림 1 응답자 성별분류(명,%)

결혼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기혼이며 미혼은 13%로 조사되었다. 조사자들이 대부분 40대 주부이기 때문에 준 영향일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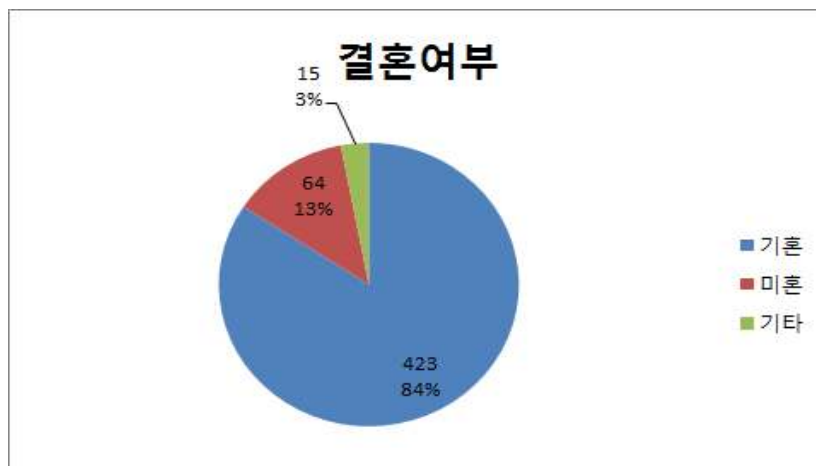


그림 2 결혼여부(명,%)

응답자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사자들이 영향을 준 부분도 있지만 일하는 노동자들의 연령순으로 응답자들도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덕구의 경우 젊은 층이 많지 않은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도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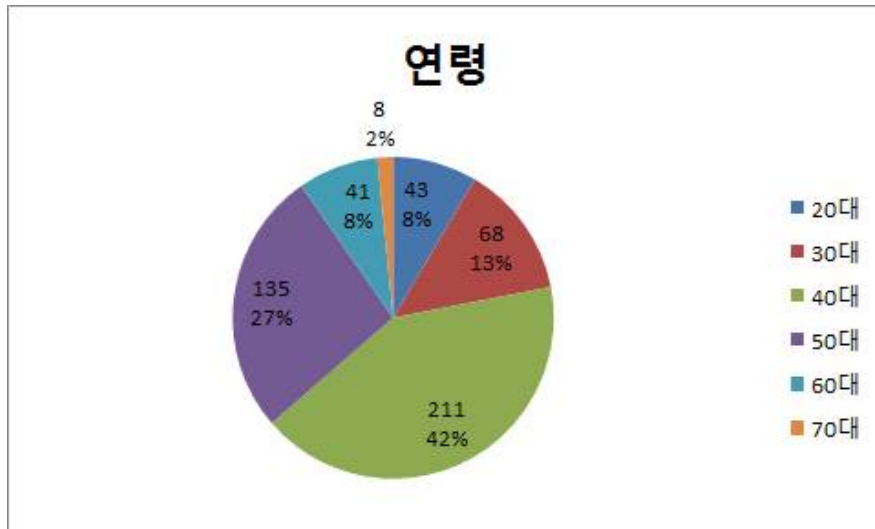


그림 3 연령별 분포(명,%)

응답자 가구당 평균 가족수는 3.62 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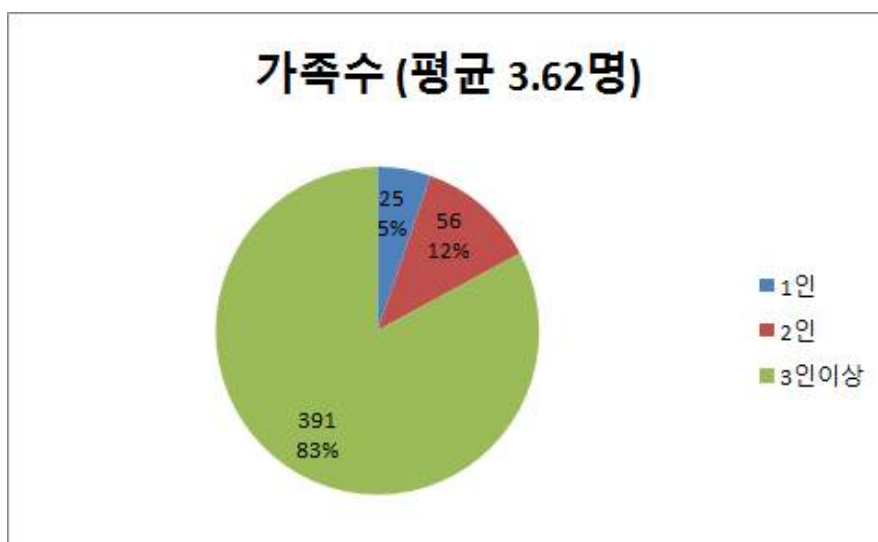


그림 4 응답자 가구당 가족수(명,%)

응답자들의 근속기간은 5년 이상이 40%이며 나머지 근속기간들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대부분 장기근속자들 뿐만 아니라, 근속기간이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류에서는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속기간이 짧았다. 정규직은 1년미만이 15% 정도이고 비정규직은 26% 조사되어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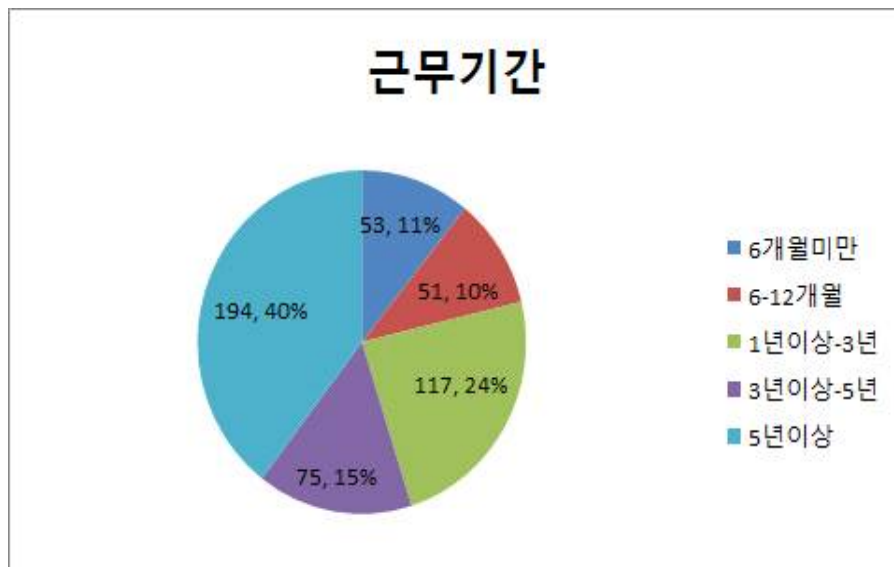


그림 5 근무기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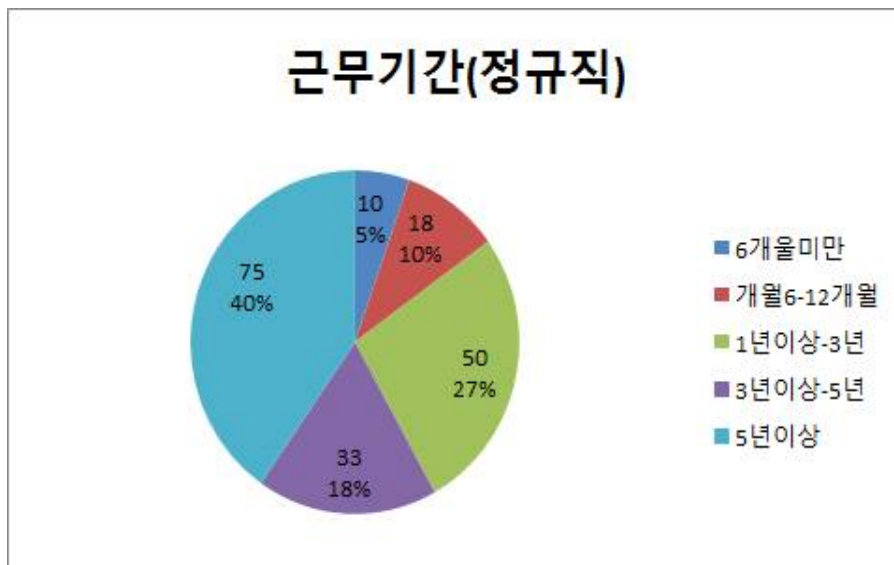


그림 6 정규직 근무기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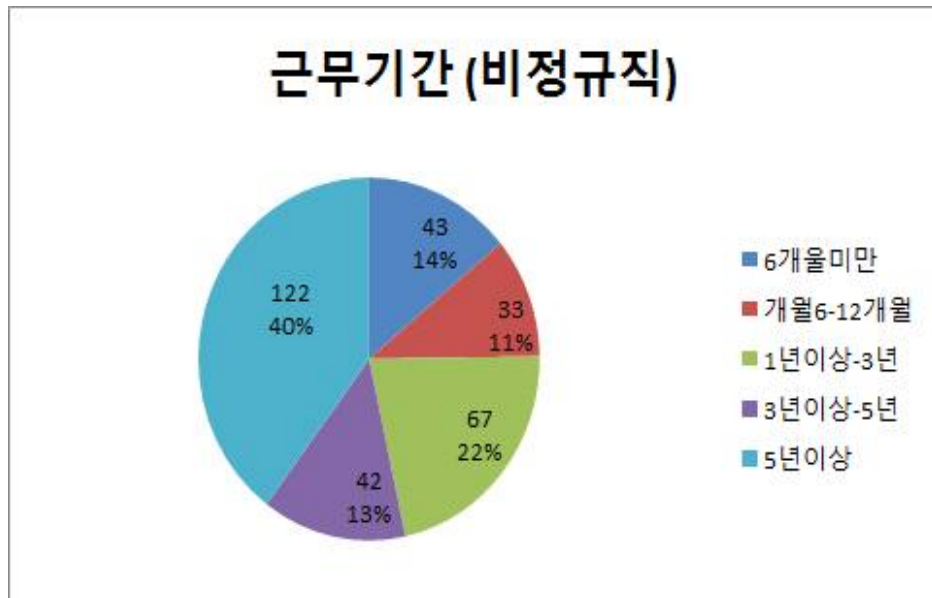


그림 7 비정규직 근무기간(명,%)

노동시간 조사에서는 주로 8시간 기본 노동시간 노동자가 많았고, 교대근무하는 노동자들은 3%, 단시간은 25%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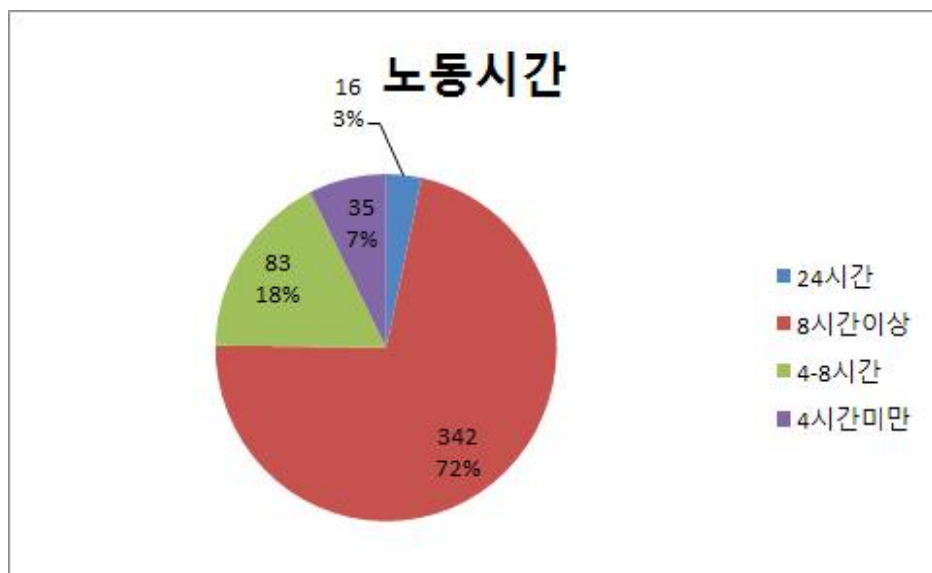


그림 8 노동시간별 분류(명,%)

임금 조사에서 시급임금자들만 분류하였을 때, 12%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직업은 개인사무실, 사회복지사, 마트종사자, 생산직, 식당 등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들이 많아서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들이 필요하다.



그림 9 시급 임금자 중 최저임금 위반여부(명,%)

응답자 평균 소득은, 개인은 192만원이며 가구당 평균소득은 42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일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정도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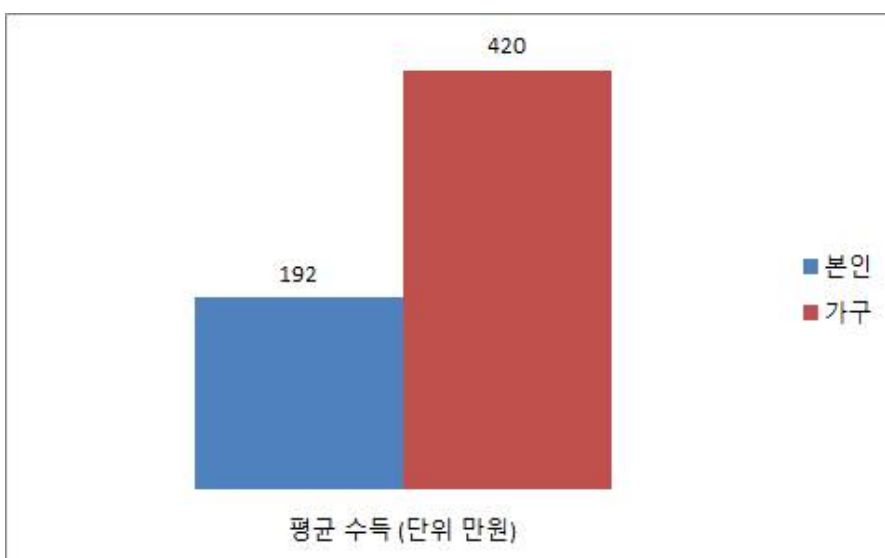


그림 10 응답자 평균소득과 가구별 평균소득

고용형태별 분류에서는 응답자의 60%가 비정규직으로 분류되었다. 다만 비정규직중 단시간제와 일용직은 따로 분류하였다. 대부분은 간접, 파견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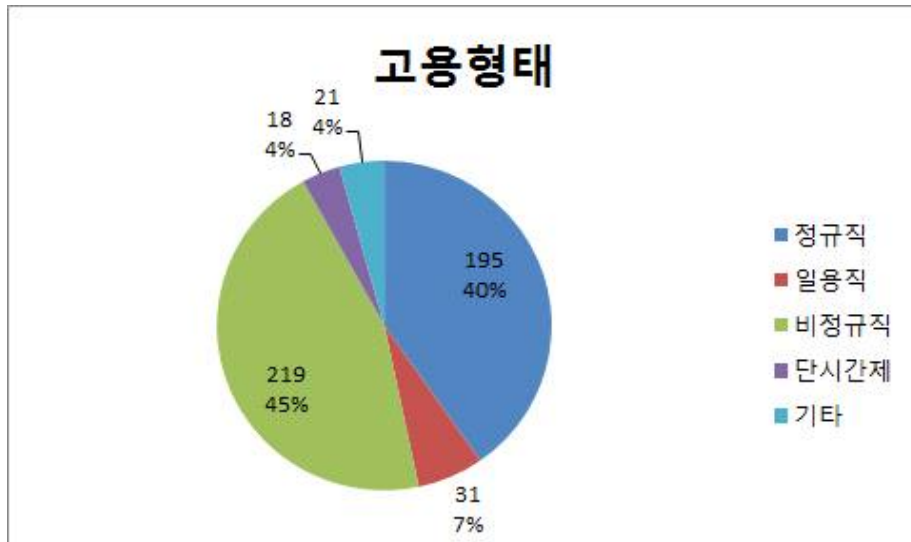


그림 11 응답자 고용형태 분류(명,%)

응답자들의 소득과 부채규모도 알아 보았다. 일부 수입과 부채규모를 밝히는 것에 대해 부담스러운 응답자들이 있어, 전체 답변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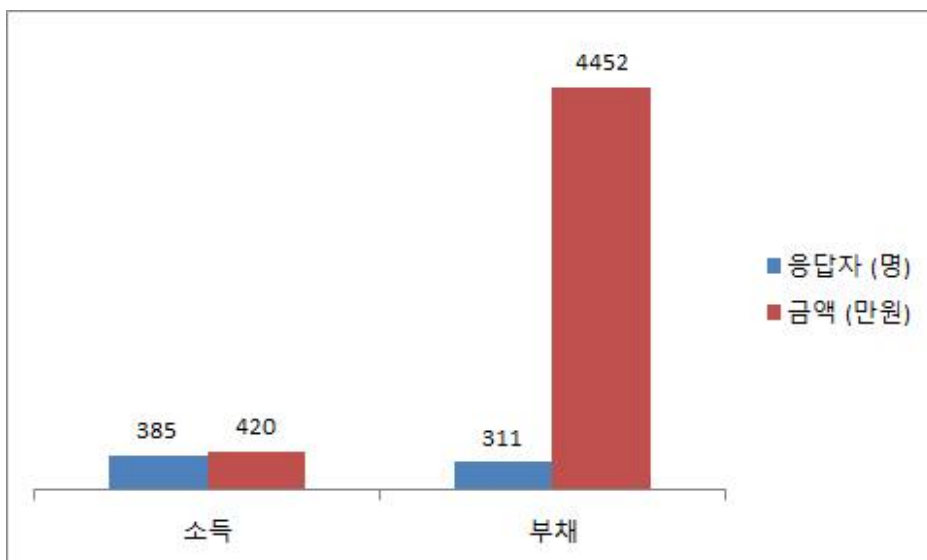


그림 12 응답자별 소득과 부채 규모

## 2. 근로환경결과

다음은 근로환경에 대한 질문내용들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응답자의 44%가 아직도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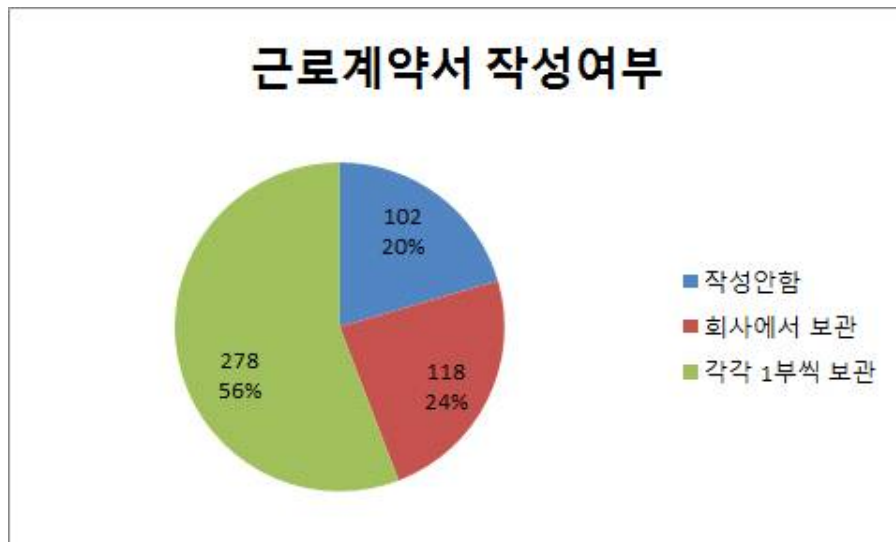


그림 13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명,%)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의에서는 정규직 195명중 190여명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정규직의 경우 288명 응답자중 건강보험 가입이 2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가입율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4대보험 가입율이 정규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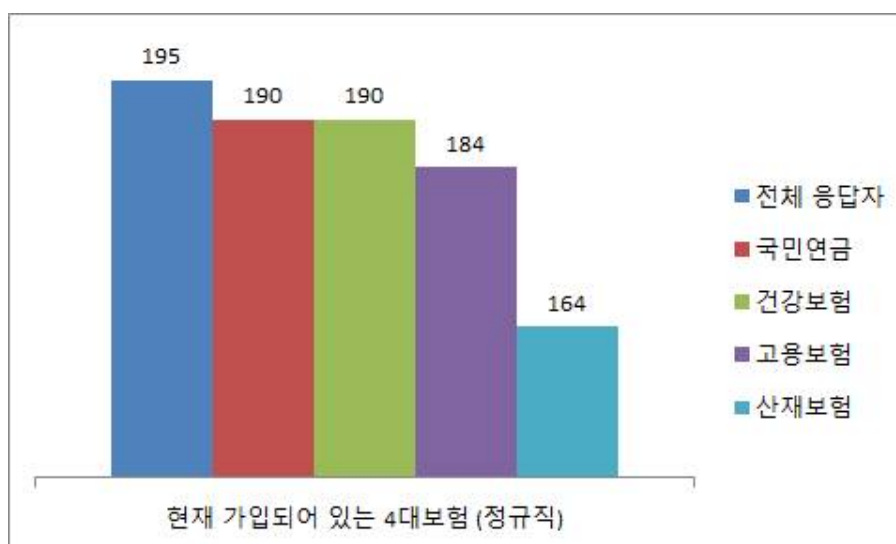


그림 14 4대보험 가입/ 정규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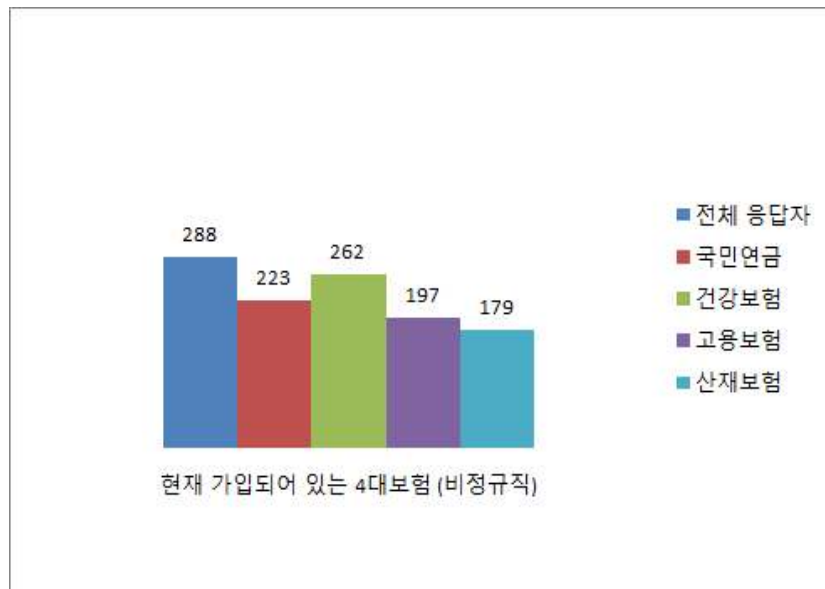


그림 17 현재 가입되어 있는 4대보험 (비정규직)

직장에서 받는 수당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사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각종 수당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많이 지급받는 식비의 경우 정규직은 195명 중 81명 (41%), 비정규직은 288명 중 101명 (35%)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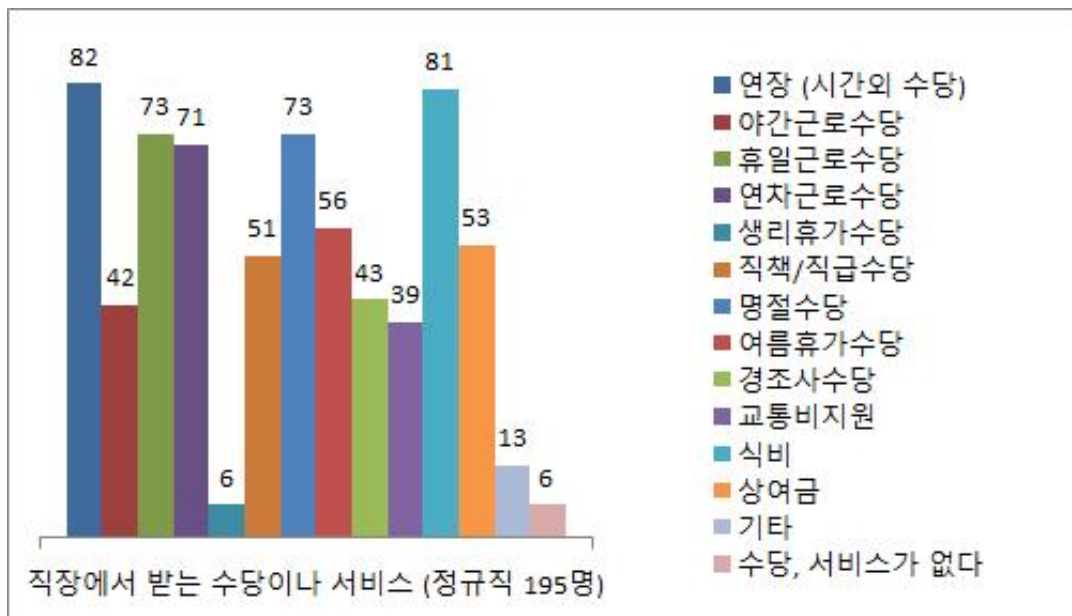


그림 18 직장에서 받는 수당이나 서비스 (정규직 195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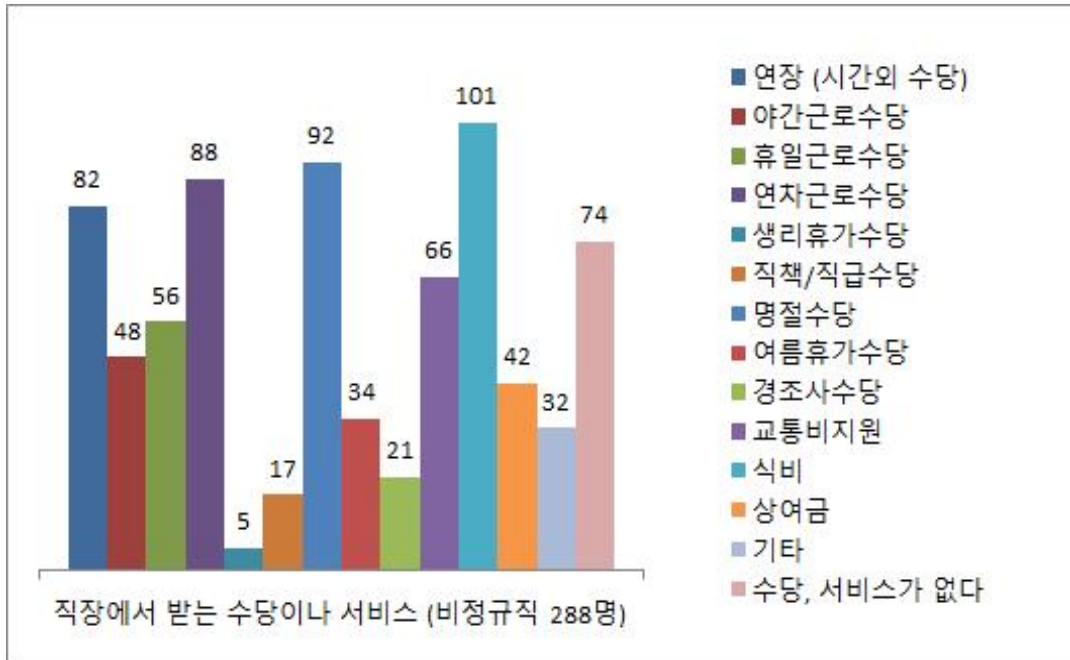


그림 19 직장이나 받는 수당이나 서비스 (비정규직 288명중)

직장에서의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질의에서는 정규직은 110명이 비정규직은 198명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생활환경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각종 복리후생지원 제도가 많은 사업장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정규직도 대부분이 없지만, 비정규직은 거의 대부분의 지원제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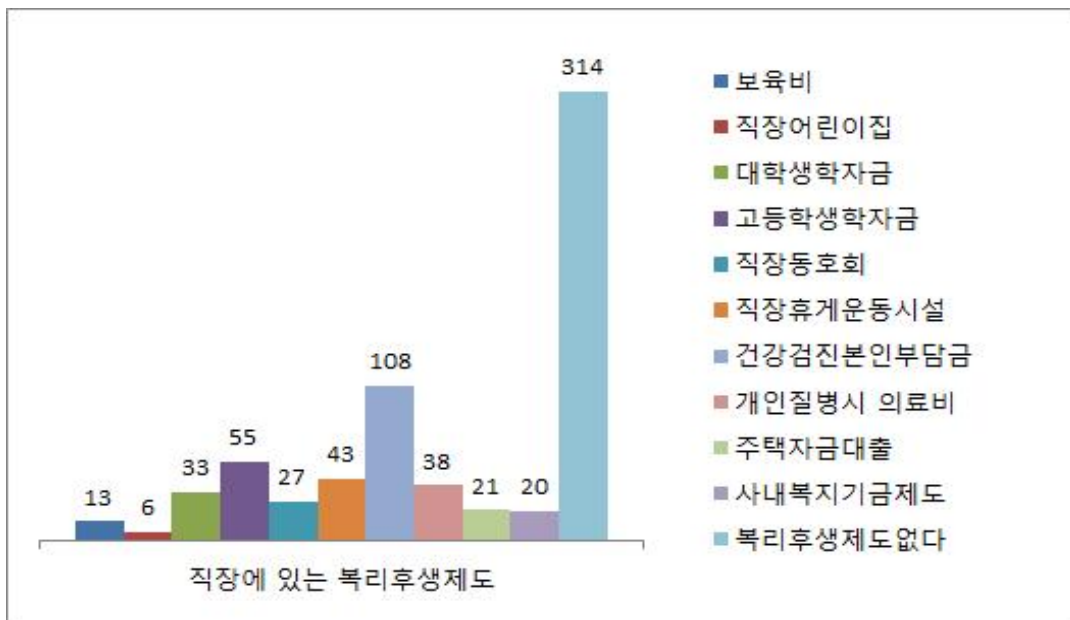


그림 20 직장에 있는 복리후생제도 (전체 502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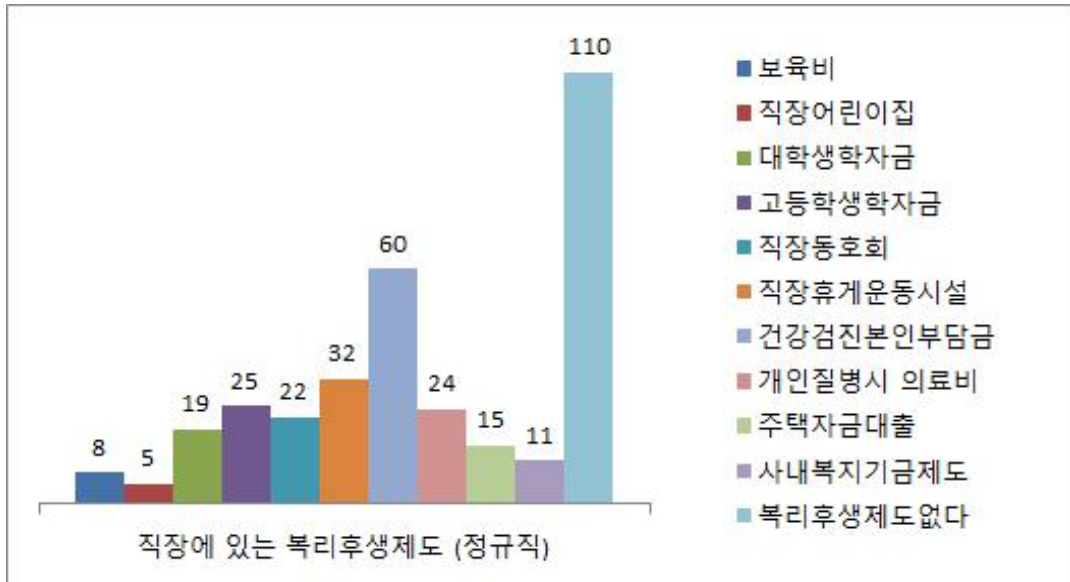


그림 21 직장에 있는 복리후생제도 (정규직 195명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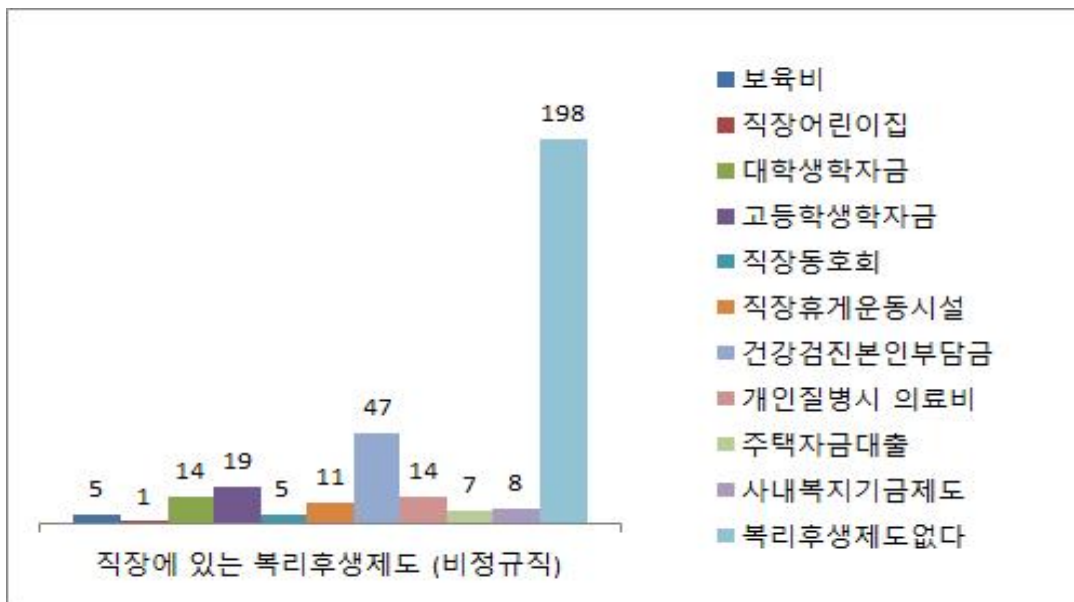


그림 22 직장에 있는 복리후생제도 (비정규직 288명중)

응답자들이 필요로 하는 복리후생제도에 대한 질의에서는 1순위 2순위의 요구들이 대부분 비슷하였다. 상위 순위를 보면 개인건강 관련 지원, 복지제도, 주택대출 등, 각종임금 인상, 학자금대출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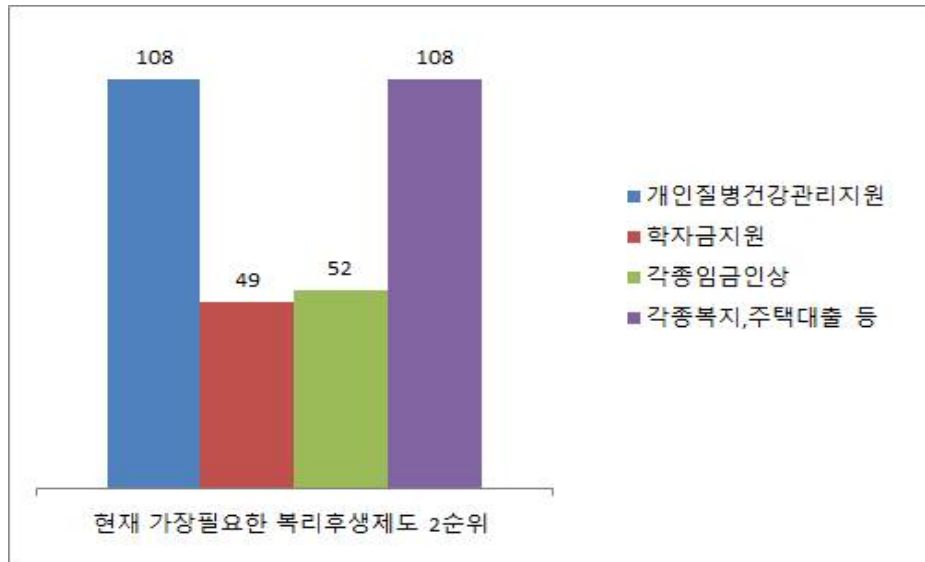


그림 23 현재 가장 필요한 복리후생제도 2순위 응답자중 상위 4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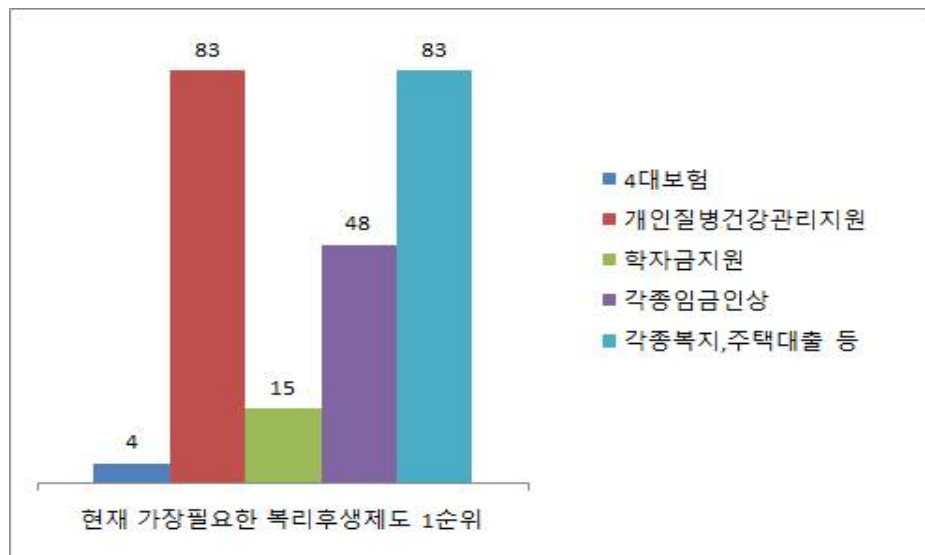


그림 24 현재 가장 필요한 복리후생제도 (1순위 선택자 상위 5가지)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부분 보통이다 라는 답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다만 임금 만족도에서는 불만족이 높게 나왔다. 정규직, 비정규직 비슷한 대답이 나왔다. 비정규직의 경우 임금만족도 중 매우 불만족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통이다’ 라는 대답에는 간담회자리에서 물어보니, 부정의 뜻이라는 응답자들이 긍정의 뜻이라는 응답자들 보다 높게나와, ‘보통’이라는 대답을 긍정적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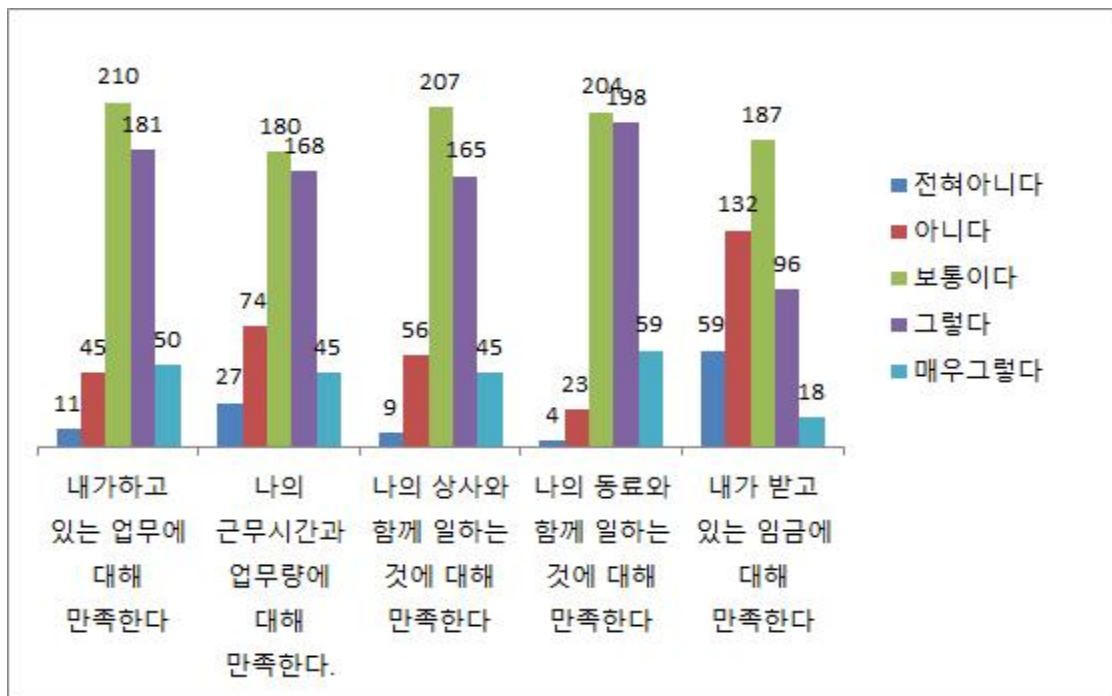


그림 25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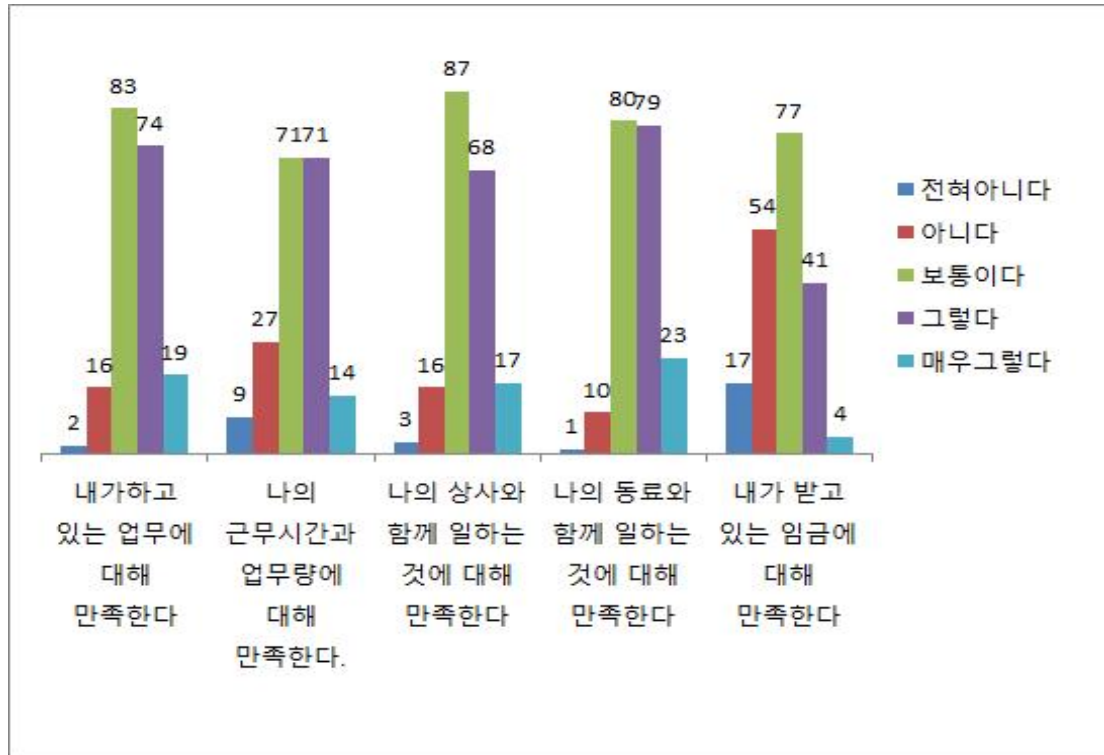


그림 26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 (정규직,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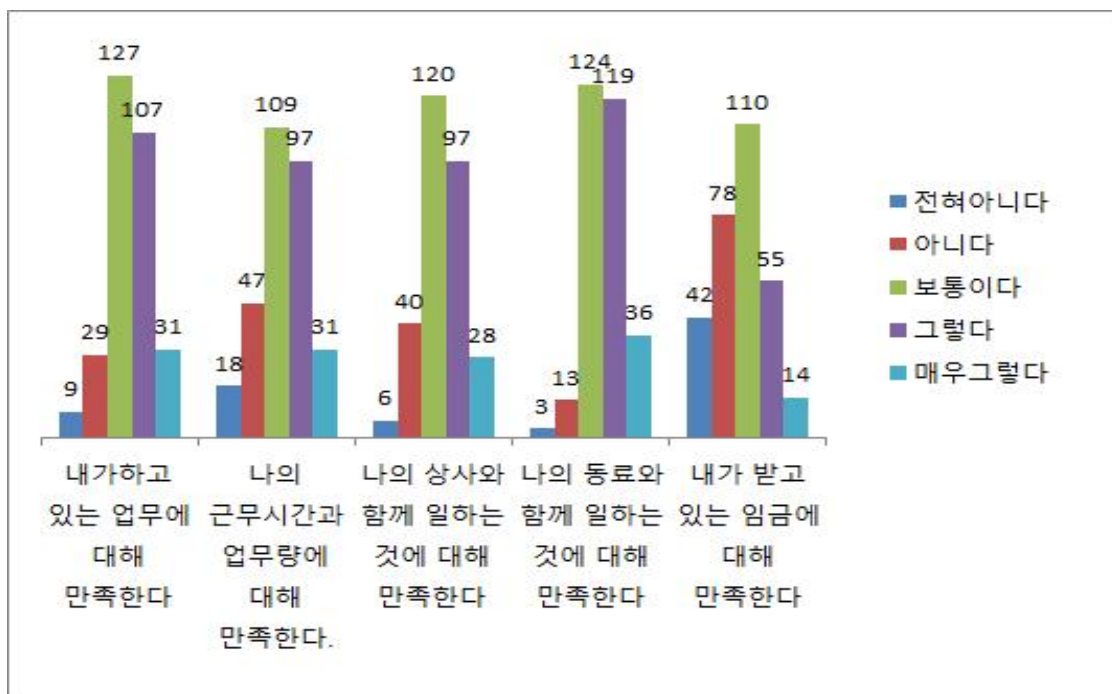


그림 27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 조사 (비정규직, 단위 명)

### 3. 자녀돌봄 및 교육에 대한 조사 결과

다음은 자녀 돌봄 및 교육에 대한 질문이다.  
자녀들의 연령대는 골고루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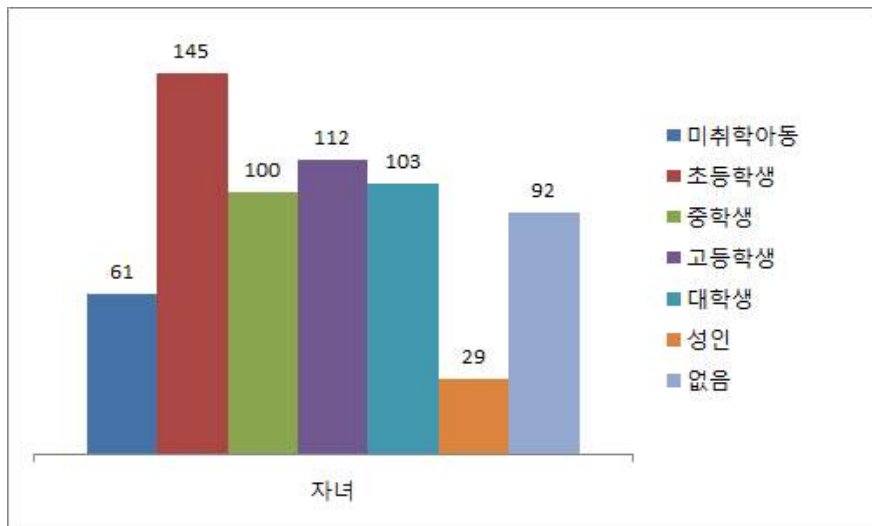


그림 28 응답자의 자녀 현황(단위 명)

자녀들의 돌봄주체는 학교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이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부모가 돌보는 아동들은 47명 정도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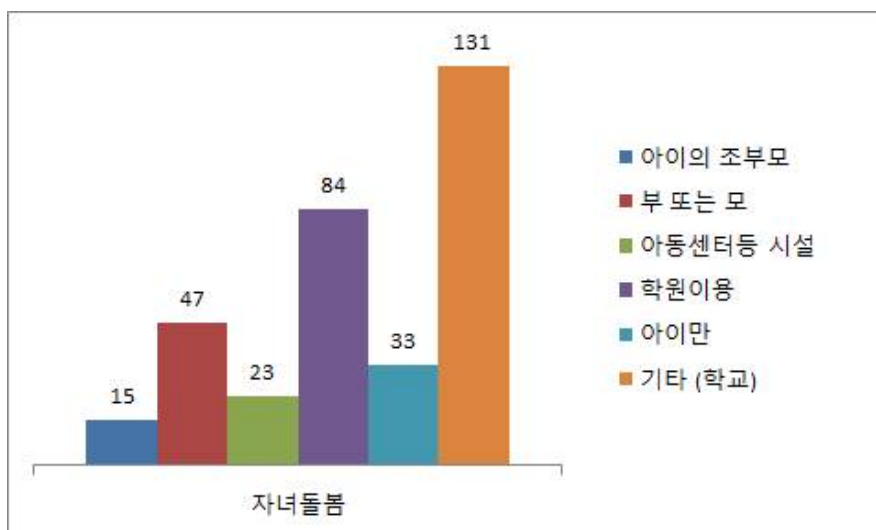


그림 29 응답자들의 자녀돌봄(단위 명)

사교육비 지출규모에 대한 응답에서는 322명 응답자 평균 52만 8천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었고 20만원 미만은 28명이 평균 10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50만원 이상 지출자들은 168명으로 평균 87 만원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교육비는 꽤 큰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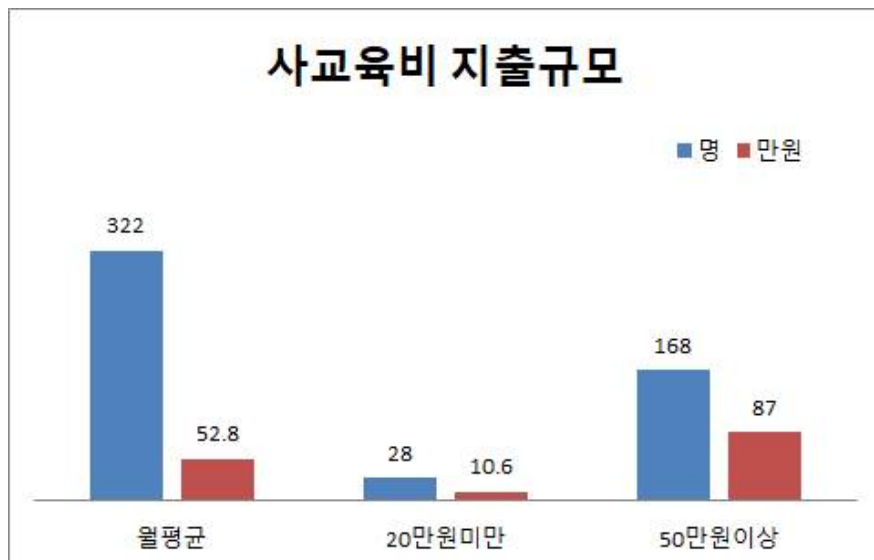


그림 30 자녀 사교육비지출 규모

귀하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질의에는 저렴한 학습지원과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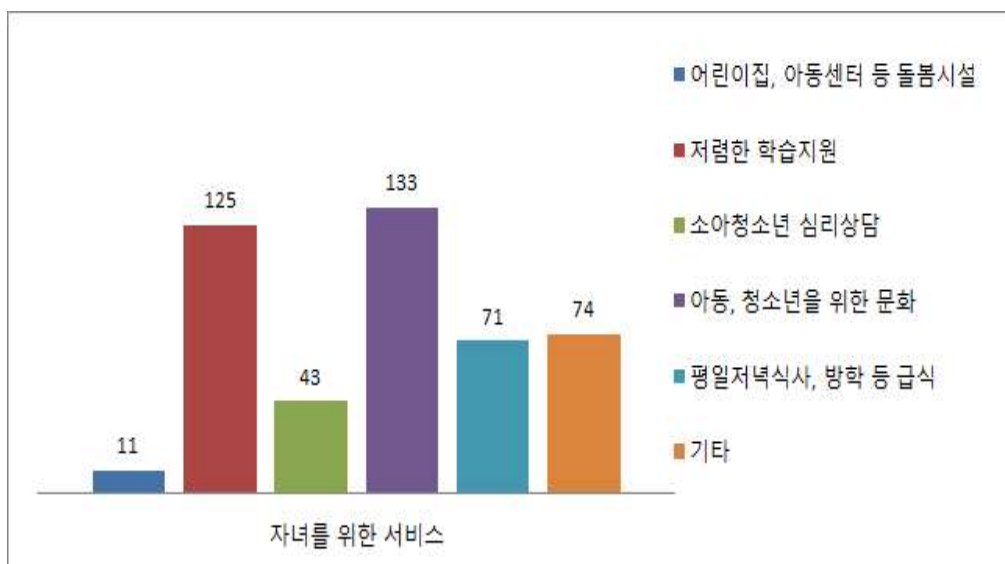


그림 31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단위 명)

#### 4. 생활욕구에 대한 결과

다음은 생활욕구에 대한 질문이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여부에 대하여는 가정관리대행(청소, 세탁, 설거지, 반찬만들기 등)에 대한 이용욕구와 주택관리대행(간단한 수리, 도배, 인테리어등), 마을부역등 반찬서비스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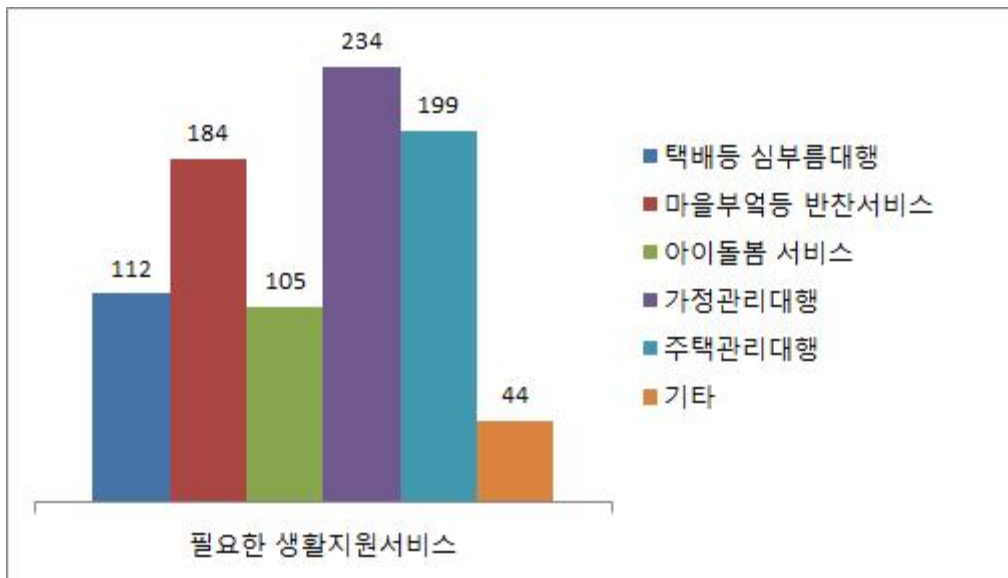


그림 32 필요한 생활지원서비스 (단위 명)

가정의 민간의료보험료 지출규모에 대한 질의에는 456명의 평균 의료비지출이 월 14만원이고, 10만원 미만의 의료비 지출 응답자는 192명으로 3만 7천원 지출하고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였다. 50대 이상의 경우 한달 19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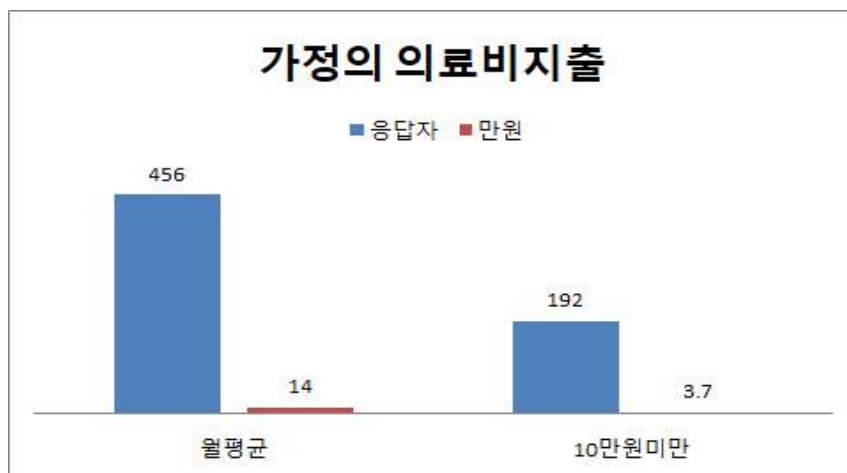


그림 33 가정의 한달 의료비지출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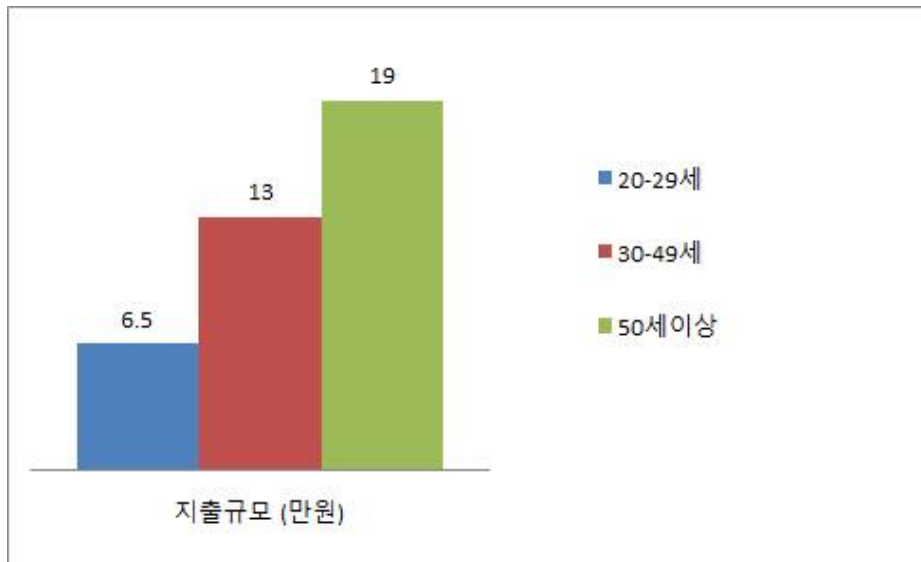


그림 34 연령대별 한달 의료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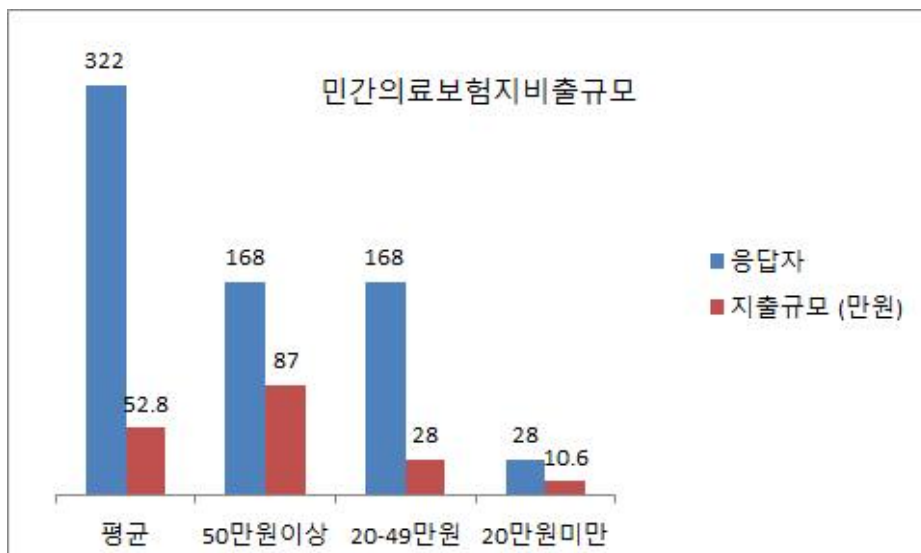


그림 35 한달 민간보험지출규모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여가활동에 대한 질의에서는 운동, 산행, 문화활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문화활동 비중이 높았고, 남성의 경우 운동에 참여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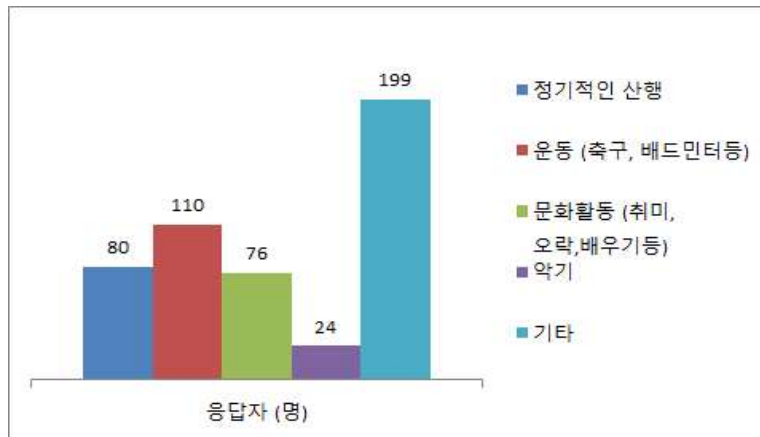


그림 36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그림 37 현재 하고 있는 여가활동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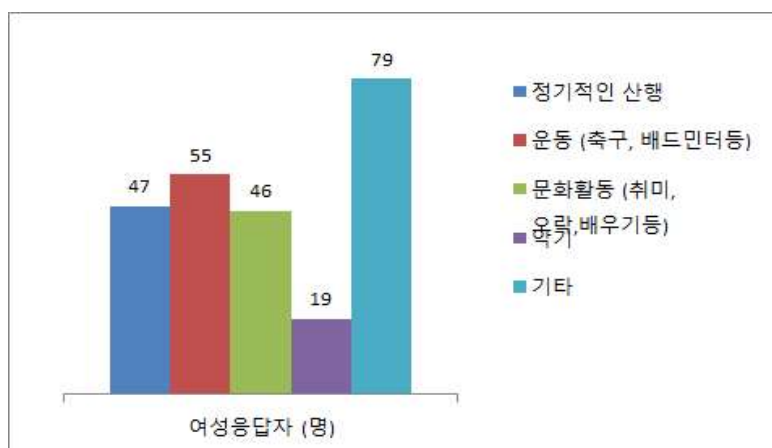


그림 38 현재하고 있는 여가활동 (여성)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연령, 소득, 능력 수준에 관계없이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Aging In Place)에 대한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필요하다하고 동의하였다. 다만 경제적 보상이 되면 참여하겠다와 약간의 봉사료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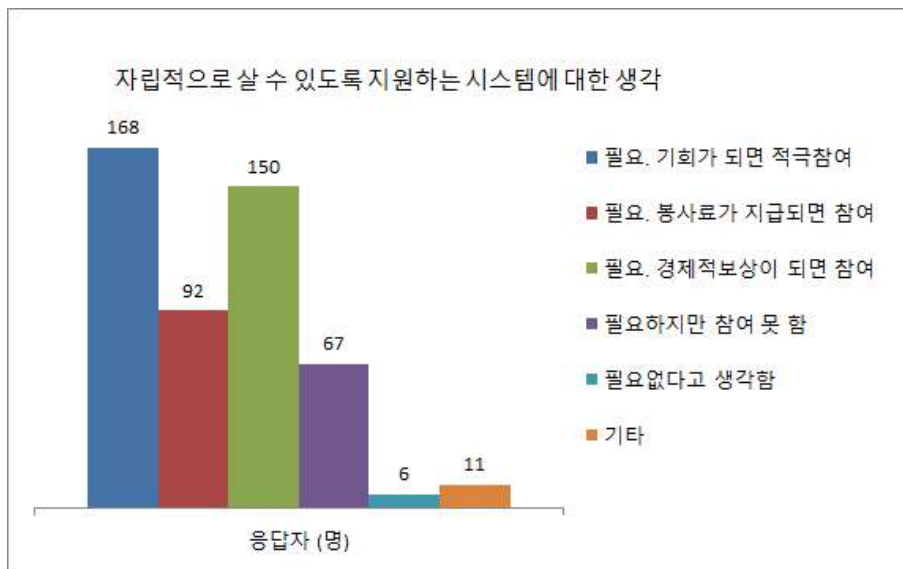


그림 39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필요욕구

필요하다고 동의하신분들 중 참여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정서와 활동 지원에 대하여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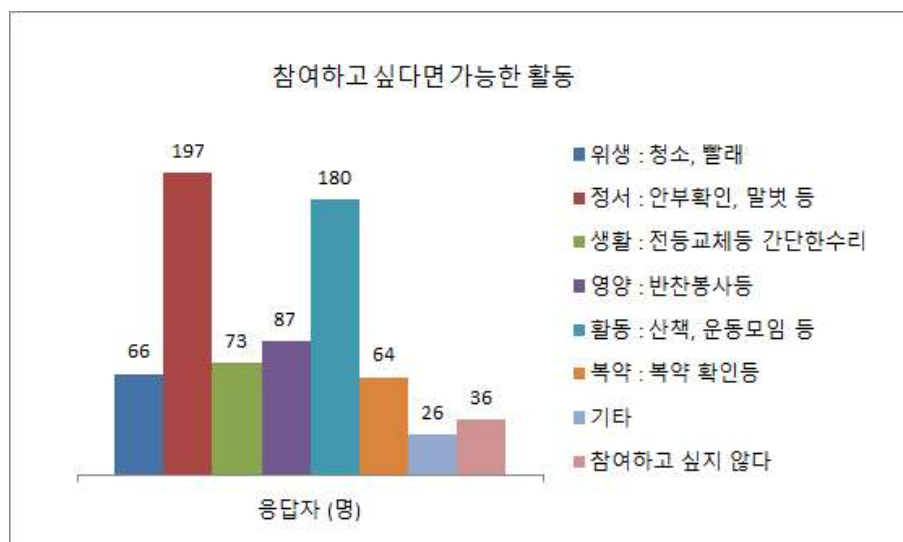


그림 40 참여 가능한 활동

## 5. 기타사항에 대한 결과

응답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묻는 질의에서는 재취업훈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문화·취미강좌에 대한 요구 순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훈련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은 이직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고용불안의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재취업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 고용불안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성별 응답자들의 현황을 보면 여성은 문화·취미강좌에 대한 요구가, 남성은 재취업훈련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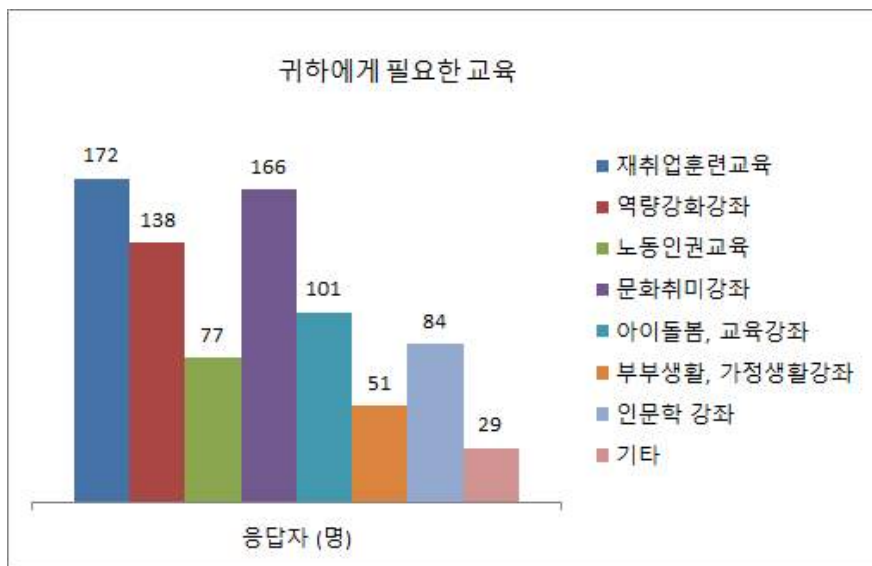


그림 41 현재 필요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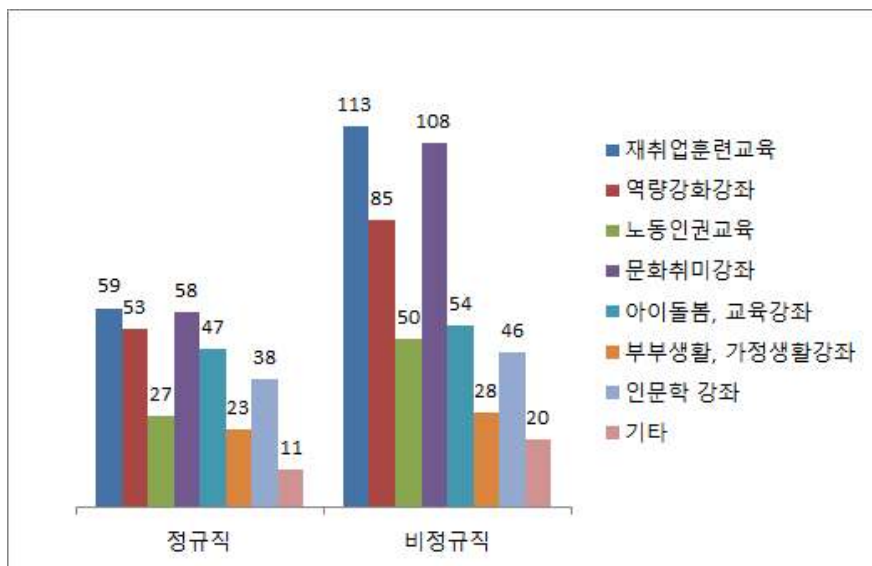


그림 42 필요한 교육 (정규직, 비정규직 분류 /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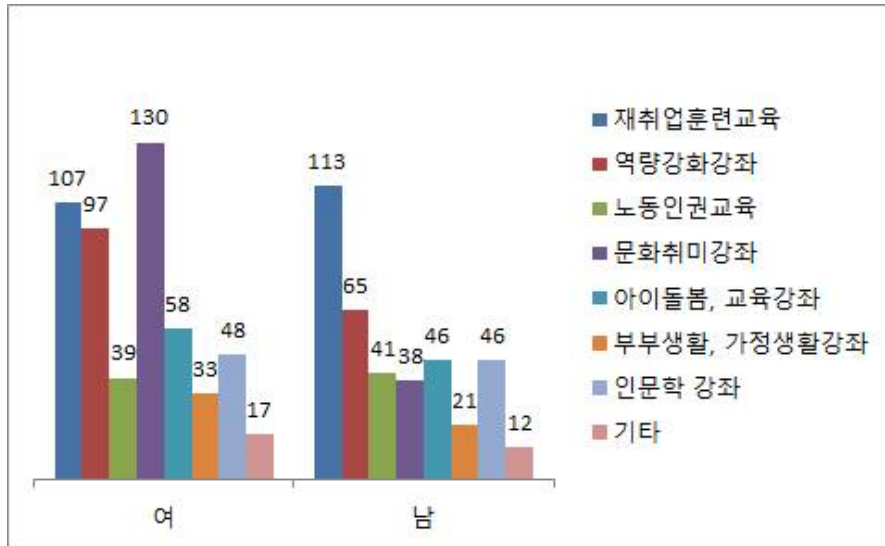


그림 43 필요한 교육 (여, 남 분류/단위 명)

대전광역시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들로는 일자리소개 취업지원요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생활임금적용확대와 근로기준법 신고센터 설치 순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일수록 여성일수록 일자리소개, 취업지원 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따른 이직희망이 높은 상황임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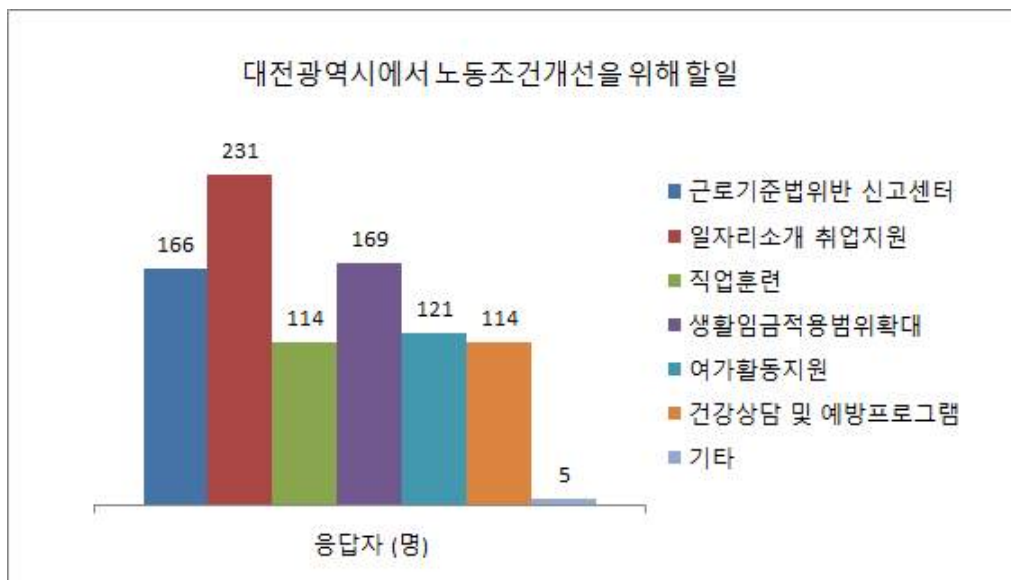


그림 44 대전광역시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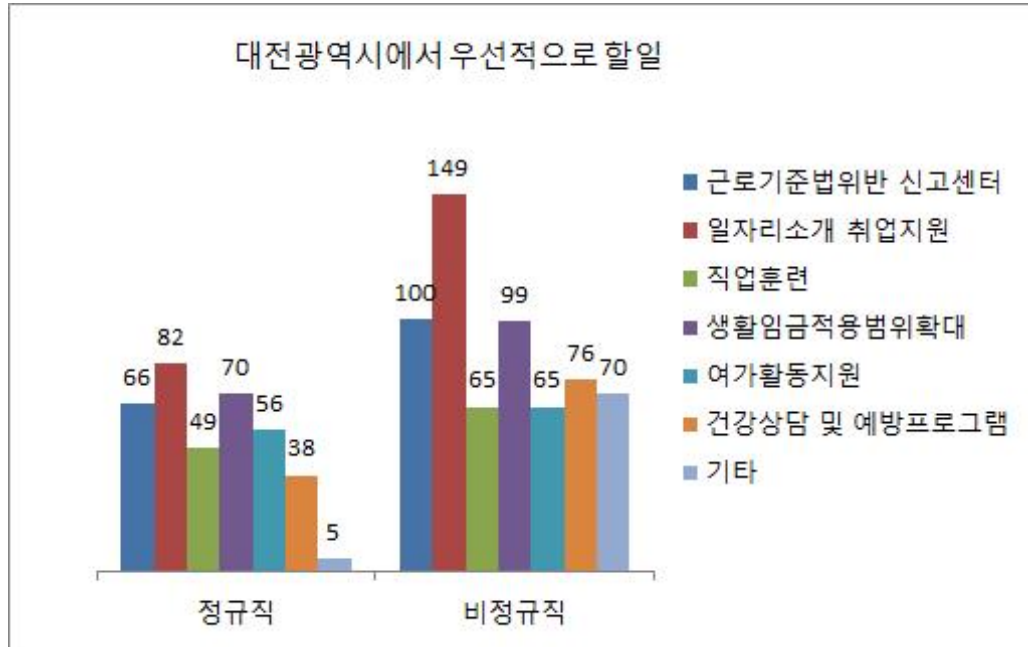


그림 45 대전광역시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 (정규직,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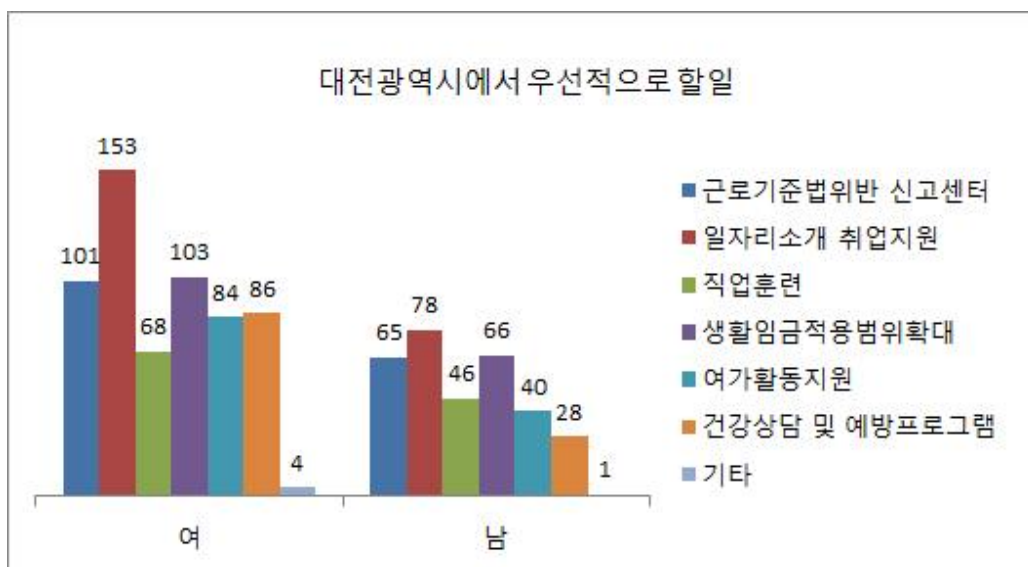


그림 46 대전광역시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할 일 (여, 남)

현재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질의에서는 가장 높은 요구로는 사용자들의 인식개선이 가장 높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의 인식개선, 근로기준법 강력단속, 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가 필요하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모두 비슷한 요구로 나타났다. 다만 남성들의 경우 강력한 노동법단속 요구가 좀 더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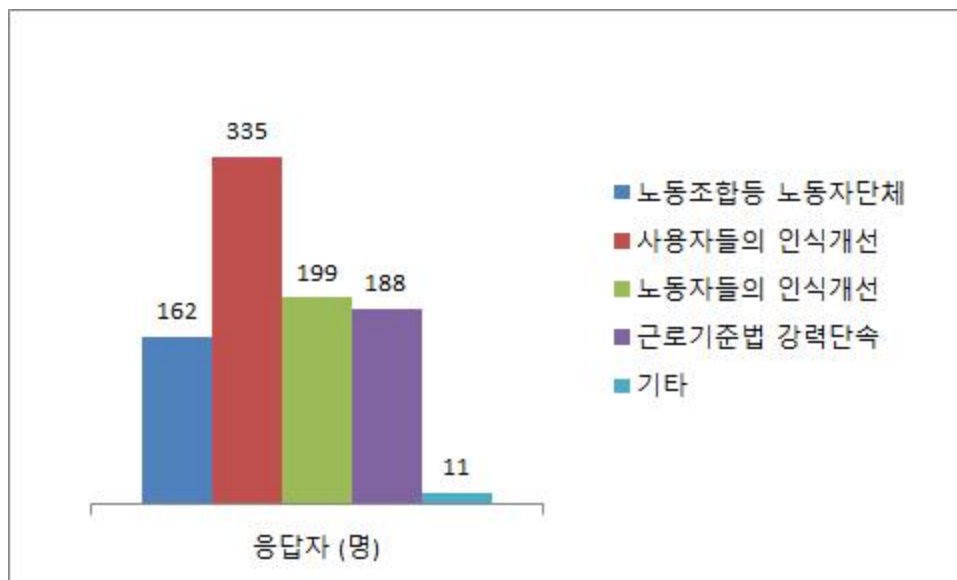


그림 47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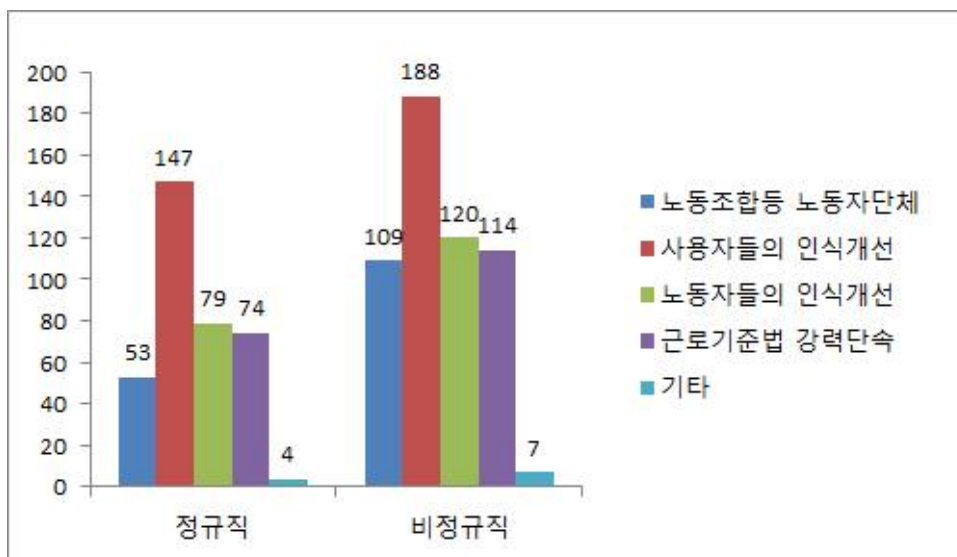


그림 48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정규직, 비정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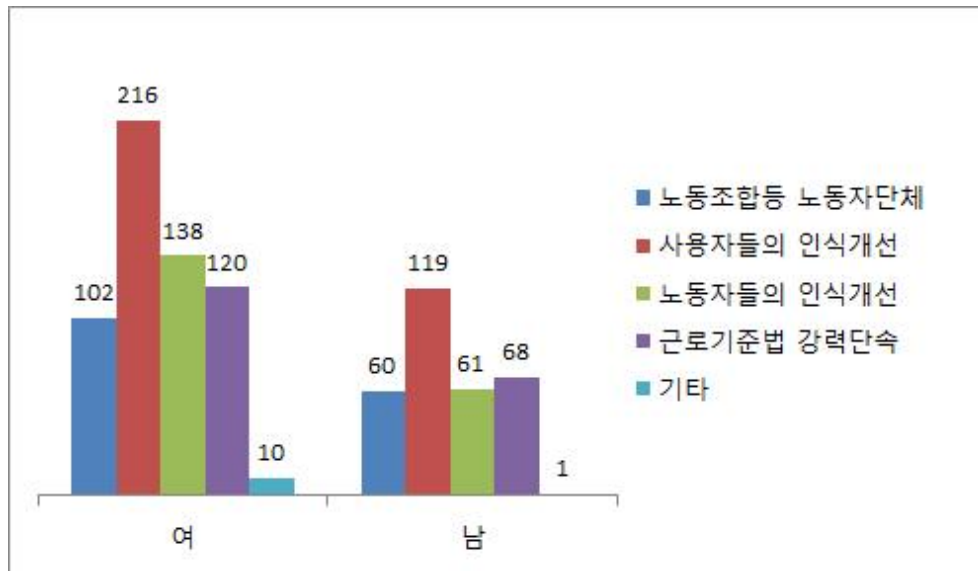


그림 49 노동현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 (여, 남)

미조직 노동자들의 네트워크 참여 의사에 대한 질문에는 294명이 적극적 참여와 참여의사를 밝혔다. 다만 177명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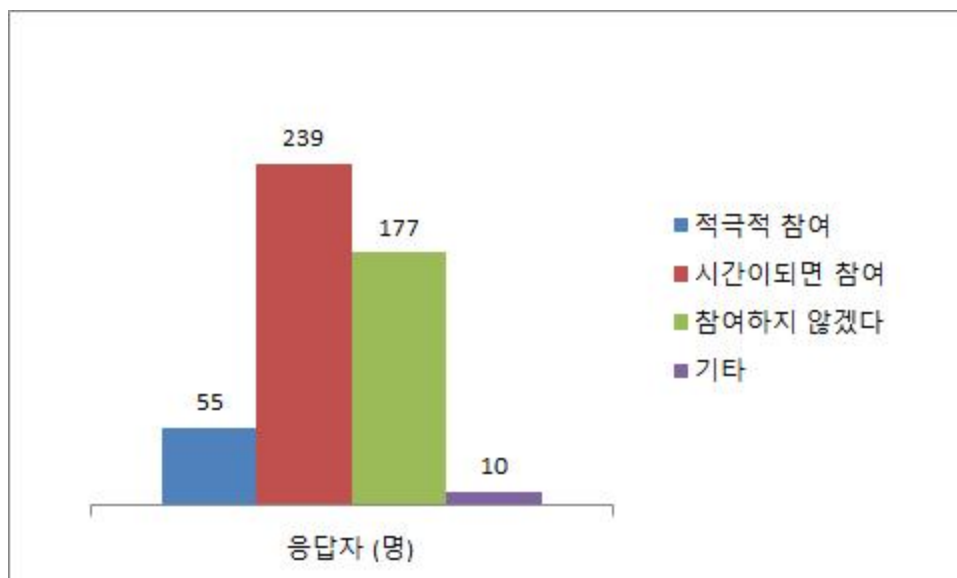


그림 50 노동자 네트워크 참여 의사





그림 51 적극적 참여 의사의 연령대별 분류



### 3장. 지역별 간담회 결과 분석

#### 1. 지역별 간담회 진행결과

	지역	장소	참석인원
7월 4일	비래동간담회	꾸러기어린이도서관	12
7월 5일	송촌동.법동간담회	자연드림 송촌점	20
7월 9일	중리동.오정동 간담회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19
7월 11일	신탄진 간담회	3대째손두부	5
7월 16일	대화. 회덕 간담회	대화동	6

#### 2. 간담회 진행순서

- 인사나누기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 2-3가지 써서 자기소개하기)
- ‘현장에서 부당한 경험이나 바뀌었으면 하는 것’ 적어보기
- ‘대덕구에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적어보기
- ‘미조직 네트워크가 구성된다면 했으면 하는 사업’ 적어보기

#### 3. 지역별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 ‘현장에서 부당한 경험이나 바뀌었으면 하는 것’

임금인상/ 시간 강사비 인상/ 휴일수당/ 휴식시간 인격존중/ 근로시간 단축/ 인권 교육 / 문화활동 (여가시간)/ 고용보장/ 네트워크 / 보너스많이/ 급여인상/ 인원충원 휴일근무수당 / 시간외 수당 /사람들의 인식 (시간외수당)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개선 (업무분리) / 연차/ 복지개선/ 급여내역서 지급/ 일하는 현장 개선/ 고용불안/ 쉬는시간이 불안/ 사업자의 변화/ 복지/ 서로의 배려/ 에너지소진에 대한/ 복리후생/ 연차 수당지급/ 근무시간외수당지급/ 휴식공간 필요/ 휴식공간/ 시간외수당/ 임금/ 식비비원/ 유류비지원/ 식비지원/ 제도/ 고용불안. 보장/ 노동조합이 없고 노사협의회 통해 복리.후생의 안정화/ 후원물품/ 업무시간외 근무 수당/ 동등대우 복지포인트등/ 휴일 비상근무도 비정규직 차별없이 수당 지급 / 대표들의 간섭과 생각이 고루하여 의견대립이 됨/ 개인적인 것들 간섭이 많음/등급별 평가기준 (콜센터)/ 소통이 어려움/ 동일임금

(사내하청)/ 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불법하도급심함 (7년근무 사장 3번바뀜)/ 불법해고/ 사업주의 일방적인 지시/ 사장, 직원들의 갑질/ 정규직의 막말/ 시간외 수당

○ ‘대덕구에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동돌봄서비스/ 출퇴근대리운전/ 여러시설 이용시간을 확대/ 단시간근로도 정규직화 / 24시간 휴게공간/ 돌봄교실/ 문화.체육시설/ 주택과 비주택구분/ 주민센터 주말이용 가능 (외국어, 엑세서리만들기 교실 등)/ 마을공동돌봄 서비스/ 아이들의 안전한 문화활동/ 6시이후의 돌봄서비스/ 문화센터 (체육)/ 취미생활 (야간, 문화센터)/ 교통노선확대/ 영화관/ 비정규직 혹은 노동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비정규직 쉼터 (사랑방, 정보공유)/ 의견 서로교환할 수 있는 공간필요/ 무료자문법률 센터/ 일자리 취업센터/ 노동자민원센터/ 검진센터/노동자의식교육센터/ 경단녀 일자리 창출센터/ 정보공유/ 노동법교육/ 중장년층 취업지원센터/노동자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 (저녁이용)/ 소통할 수 있는 직속창구/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노동상담소나 불법노동신고센터/ 비정규직, 영세노동자 신문고 운영/ 일자리지원센터 - 취업지원 (안전한 일자리)/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찾아주는 곳/ 심리상담치료소 / 무인발급기 서비스 (파출소 앞등 거점 중심으로)/ 취업센터 시니어 취업창출/ 법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감시/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교실/ 노동교육/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경영인 포상/ 노동자들의 기본 권리를 잘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맘센터/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법으로규제할 수 없는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감시할 수 있는 기관/ 노동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경영인 교육/ 버스시간 야간 연장/

○ 미조직 네트워크가 구성된다면 했으면 하는 사업

노동법교육/ 취미활동/ 성교육 네트워크/ 가로등 불밝기/ 일자리 정보/ 정보전달 (직장인 혜택, 노동자들의 대책, 사회복지 안내)/ 퇴직자들을 위한 안내/ 몰라서 못 챙겨요/ 신문고/ 무료상담/ 동마다 서로서로 연결할 수있는 연결망이 있었으면/ 노동법에 대한 설명/ 정보공유/ 복리후생/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항의.개선/ 비정규직 복지개선을 / 이해대변/ 단체협상/ 비정규직, 영세사업자들을 위한 정보제공/ 정보공유/ 악덕업체 정보제공, 불매운동/ 감시자역할/ 노조없는 사업장에 대한 교육/ 노무사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꾸준한 교육/ (교육이수 후 변화과정체크)/ 안심 작업장 선정/ /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 인정하는 경인인 포상/ 청소년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보장/ 부당한 사례를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상담 / 재능기부 기회/ 노동자권리 교육/ 건강관련 교육, 정보 제공/

## 4장. 정책대안

### 1.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

#### ○ 근로기준법 단속

최저임금위반(12% 위반), 근로계약서(44%위반) 4대보험 미가입 비정규 288명중 262명만 건강보험 가입 179명만 산재보험 가입 197명만 고용보험 가입, 시간외수당, 임금명세서 미지급, 불법파견 사내하청, 부당해고, 휴일수당위반등 이번 조사를 통해 대덕구내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법의 사각지대에 많은 노동자들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와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 소규모사업장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단속과 예방교육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 ○ 사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동자들이 ‘사용자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필요성을 첫 번째 과제로 뽑았다. 이는 사용자들의 의식이 전근대적인 노사문화에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사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이런 사용자들의 인식은 노동인권 보호에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하다. 물론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법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함께 진행 되어야 한다. 또 노동자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들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입문 과정에서 ‘노동관련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 하여야 한다. 사장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근로기준법과 노동인권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영세, 중소기업, 대규모 사업장에서도 노무관리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을 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오랫동안 굳어진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또 안심 사업장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홍보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용자들의 의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 ○ 노동자 인권 교육

사용자들의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의 노동권 보호도 필요하다. 많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해도 그것이 부당한 것인지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다. 부당한 노무관리가 당연시 되어오고, 바꿀 수 없을 것이라는 패배적인 노동권에 대한 시각의 영향이다.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스스로 알고 찾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노동법,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작년, 올해초 두 번 노동법이 개정이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교육한 번 받을 수가 없다. 노동부의 안내책자 하나로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곳은 교육기회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율은 10% 안팎이며 비정규직은 그것마저도 2-3% 수준이다. 나머지 90%의 노동자들은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노동청에서 교육기회 제공을 확대 시켜야 한다. 재취업 훈련과정에 노동권 교육을 필수 교육으로 이수토록 하거나 영세사업장들의 경우 찾아가는 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하에 노동상담소, 노동복지센터 등 노동단체를 설치하여 노동인권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 취업지원 및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지원

많은 취업알선지원 사업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취업 후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워크넷에 올라오는 사업장들도 취업하러 가보면, 워크넷에 올라온 정보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시간이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종종 상담오고 있다.

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제기된 문제들인데, 노동자들은 안심 사업장 취업지원을 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회사, 노동권이 보호되는 취업을 원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례들이 상담오고 있어서 취업소개 뿐만 아니라, 취업 후 노무관리 지원도 필요하다. 특히 영세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관례적 노무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노무관리가 고전에 의존하고 있고,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주도 몰라서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알선 지원사업과 더불어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이 중요하다. 서울의 '찾아가는 마을노무사', 안산의 '일드림사업단'처럼 영세사업장 노무관리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한다. 노무관리에 대한 감시, 감독, 예방을 노동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대부분이 노동자이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노동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2. 생활욕구에 근거한 대안

근본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동반되어야 하겠지만, 노동자들은 생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을 필요로 하고 있다. 노동정책은 근무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

나 현재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묶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주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2023년까지 소규모사업장은 예외가 된다.

생활서비스 욕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요구는 가정관리대행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간단한 집수리, 도배, 인테리어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다. 두 번째 높은 요구는 가정관리대행으로 청소, 세탁, 설거지, 반찬만들기 등에 대한 서비스 요구이다. 세 번째는 마을부역을 통한 반찬서비스 등(공유부역, 파티, 잔치 대여)의 요구이며 네 번째 요구된 것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병원방문, 저녁돌봄 등)이다.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저렴한 학습지원 서비스와 아동, 청소년을 위한 문화 서비스 요구가 높았다.

여가활동으로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여가활동이 없는 노동자들도 상당했다. 오히려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Aging In Place(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부분 노동자들이 필요하다고 동의하였다. 참여 가능한 활동으로는 정서(말벗, 안부확인 등), 활동(산책, 운동모임 등)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서울의 직장맘지원센터처럼 문화프로그램과 생활서비스지원이 가능한 사업들이 대전광역시에서도 지원되었으면 한다. 서울의 경우 이동노동자 쉼터, 자치구별 노동복지센터, 직장맘지원센터 등 다양한 노동자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대전광역시는 노동자 지원사업들이 거의 없다.

### 3. 대덕구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안

#### ○ 노동자 지원을 위한 복합기능센터 운영

대덕구 영세사업장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법률 상담, 노동자 교육사업, 노동관련 정보제공, 취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기능을 갖춘 노동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등 노동권보호와 예방, 더 나아가 취업지원 까지 가능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주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

취업알선과 사후관리, 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와 포상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노사문화의 개선을 가져 올 수 있다. 낡은 노사문화를 바꾸고, 새로운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벌여 나가야 한다.

또 대덕구 노동자들의 노동법률 상담에 대한 요구가 높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노동부터 영세규모 사업장 노동법률상담까지 많은 노동자들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행정관청에 요구하고 있다. 노동청의 행정서비스만으로는 제한이 많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노동권리 구제 활동에 나서야 한다. 상담활동을 통한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예방활동까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면 대덕구 내 영세사업장의 노동환경은 많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정보에 대해서도 노동자들은 제공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노동청의 안내책자 하나로 사업주들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해결할 수 없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취업부터 노동, 퇴사, 재취업까지 노동자들을 위한 ‘원스톱 노동환경 개선 지원시스템’이 대덕구내에도 필요하다.

노동자 쉼터, 노동상담, 노동인권교육, 취업알선과 관리 까지 원스톱 노동행정을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 ○ 취미. 문화프로그램 지원

대부분의 취미. 문화 프로그램들이 낮시간에 진행되어, 배우고 싶은 노동자들에게 기회가 없다. 이번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알선 다음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취미.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노동법이 통과되고 나서 2023년까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저녁시간이 한결 여유로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보여지듯이 마땅한 취미. 문화 활동이 없는 노동자들이 많아, 노동자들의 숨과 문화가 있는 저녁시간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문화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복합센터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다양한 문화강좌들을 노동자들을 위한 시간대 편성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 생활임금 조례제정을 통한 임금체계 개선

대전광역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 생활임금 적용 확대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가 높다. 대전시의 2018년 생활임금은 9,030원이다. 대전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성과 서구에만 현재 생활임금을 실시하고 있다. 대덕구에서도 생활임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생활임금 적용을 선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생활임금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공공부문에서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제시하고 임금의 상향평준화를 유도해야 한다.

또한 생활임금 적용범위를 기관내 직접고용한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견. 용역, 민간 위탁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민간부문까지 생활임금 적용을 유도해 줘야 한다.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재인 정부 출범후 가장 먼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을 했다. 비정규직 양산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양극화 심화와 이로 인한 문화, 복지, 교육의 양극화이다. 공공부문이 먼저 비정규직을 없앴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모범 사업주의 모습을 보여 주겠다는 선언은 사회양극화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당연한 귀결일 수 밖에 없다. 2018년 대전광역시 산하 공공기관들은 용역,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과정까지 마무리 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대덕구도 기간제 비정규직부터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 기간제, 파견·용역,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로 지방정부 좋은일자리 만들기의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좋은 일자리는 곧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떠나가는 대덕구를 청산하고 돌아오는 대덕구로 되돌릴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 직장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대안 마련 요구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사를 통해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퇴근후 민원업무를 볼 수 없음으로 인하여 직장에서 외출이나 휴가를 사용해야 되는 형편으로 퇴근후 구청 민원업무등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높았다. 민원24나 무인 출력기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한 듯하다.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대안마련은 공공기관에서 모색 하여야 할 것이다.

#### 4.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대안

○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육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렇다 보니, 기회를 놓치는 노동자들이 많다. 하지만 기회를 놓친 노동자들의 자신의 사례를 다른 노동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 노동자들 사이에 정보에 대한 목마름이 많다. 노동자들끼리의 네트워크를 통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가장 바라고 있었다. 정보의 내용은 노동법, 일자리, 퇴직자, 재취업훈련, 악덕업체, 안심사업장, 부당한 대우 사례, 복지 등 다양한 요구가 있다.

○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네트워크를 통해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달라는 요구가 높다.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정,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교섭, 노무사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꾸준한 교육, 현장 감시자 역할 등의 요구가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다 보니,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당한 대우에 같이 항의해 줄 수 있는 단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어려운 문제를 상담하고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노동자 단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 생활공제회, 노동단체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자 조직들이 있다. 하지만 지역별 영세, 소규모 노동자들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이 대전지역에서는 거의 없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노동단체가 시급히 필요하다. 하지만 한사업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지 않아, 기업별 노동조합을 조직하기는 쉽지 않다. 유니온 조직처럼 지역을 근거로 다양한 직업의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단체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청년 유니온은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구조로, 지역별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조직을 고민해 봐야 한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장의 많은 고충들을 해결하려면 단체의 활동 범위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단체가 불온시 되어오던 과거의 낡은 행정을 깨고 노동자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노동권 보호와 증진에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

## 5장. 활동자료

### 1. 조사원 활동 후 소감

#### <강승희>

비정규직의 경우 6개월~1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져 고용 보장이 되지 않고 있다. 대체로 복리후생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 <권희선>

각자의 직업에 만족하기 보다는 그냥 생계니까 하면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았다. 급여 부분에 대해 불만족이 많았고 내가 무슨 복지를 받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 <김다영>

우리지역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비정규직에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그런데 본인이 비정규직인데도 당연히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아직 어떻게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모르는것인지...아니면 근로계약서상에서만 서류만 정규직인지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되고 힘든 분들도 많고 대출도 많고 보험도 급여에 비해 너무 많이 내고 살고 부조리 한게 너무 많이 보여 속상했지만 재미있는 설문조사 었습니다

#### <김선미>

처음엔 조사자인 저 자신조차도 생소하고 어색하였습니다.

몇분을 조사하다보니 나름대로 조금은 설명도 해드리고 설문지에 응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어서 ‘아 너무 관심이 없구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게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이번계기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되거나, 부당하게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삶을 꾸려 가시는 분들을 보며 제가 알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분들께 더 감사한 맘이 들었습니다.

이 조사가 헛되지 아니하고 조금이나마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개선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김은미>

첫째 날 교육을 받고 지인 중에 떠오르는 사람들 명단을 작성 한 후 바로 일에 착수 했다. 설문지 내용을 보니 인적 사항을 적는 부분이 없기에 대상자들이 큰 부담감 없이 편

하게 해 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니나 다를까 조사하면서 대체적으로 다들 편하게 조사에 임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주니까 다들 좋아 했다. 주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보다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뿐만 아니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월급이 너무나 형편없다는 거에 적잖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또한 어떤 분은 근로계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가게에서만 벌써 3년이 넘도록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나중에 그만 둘 때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면서 한 번도 여름 휴가비는커녕 명절조차도 떡값이라는 명목상의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고도 한다. 비정규직의 실체를 직면하면서 비정규직들의 설움과 부당함에 몸서리가 쳐지면서도 아이러니한 것은 나또한 이런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놓였기에 한편으론 서글퍼지면서 입맛이 씹쓸할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고달프기에 이젠 직장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 <김홍복>

사실 저는 조사하는데 별 어려움 없이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거 조사하려 다니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왜 정부에서 돈 낭비하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상이나 털리나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이 어려움은 많은데 내 권리는 찾아야 한다고 생각은해요  
우산이라는 미끼를 던지고 본인신상이 전혀 안들어 가니 싫기도 했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니 불만도 많고 아플 때 본인부담금지원이 안되고 휴게시간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 쉴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불만이랍니다

#### <박진희>

여러 곳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요 생각보다 근로계약을 안 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꼭 해야될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근로자들 자신의 인식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니 비정규직 여러분들의 의견 들으시고 개선사항이 많이 어필되길 바랍니다.

#### <유성숙>

적은 보수에도 나름 자신의 직업에 보람을 느끼며 행복해 하는 분들을 만나서 행복했고 내일은 더 나은 삶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을 만나 긍정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사회에 작은 구성원임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윤현숙>

안타까웠고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조사하는 동안 많은걸 배우게 되었다. 힘들 일을 하는 직종일수록 계약서나 노동조합이 없다는 현실이 슬펐다.

<이재순>

막연하게 느꼈던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이나 필요사항들을 직접 만나서 듣고 나니 그분들의 안타까움등을 개선하고 싶은 의지가 생겼어요.

<이지은>

일반 관공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의외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다시 한번 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다.

<장현주>

노동자들의 실태와 생활욕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인데, 사용자와 노동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질문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현실을 느끼게 해주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정당한 대가와 노동현장의 복지에 대해 불만족 보다는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어야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생활양식도 같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일치하는 것은 여러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만족도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래도 설문을 통해 본인들의 일에 대한 생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았고, 간담회같은 자리에 시간이 되면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불참하겠다는 의사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서 간담회와 권리지킴이모임으로 잘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편으로는 공공기업이나 공무원 같은 어느 정도의 복지와 근로환경이 안정되어있는 직업군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인지도 궁금하기도 했다.

개인 기본정보 항목 중에 자가 라고 체크되어있지만 부채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집을 소유하는데 있어 대출비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되기보다, 단시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형식이여도 정규직화 되어서 기본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근로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전찬주>

취업시장에서 근무환경이나 노동자의 복지를 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노동이 존중받지 못해서 노동자 대부분 본인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 없이 마지못해 일하는 분들이 대부

분이었다. 노동환경은 노동자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사용자입장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 <정지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우리주변에 대기업에 다니지 않은 이상 노동력에 비해 복지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최희규>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게 되고 근무환경에 대해 알게 되서 좋았고, 작은 업체에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정부에서의 지원이 필요할거 같은 생각이 들었다.(급여 외의 회사 혜택이라는 것이 없음)

#### <한민수>

설문지를 대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뭇 진지하셨고, 설문지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새로운 기대감을 갖으시는 눈치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수입,지출, 민간보험에 들어가는 금액이 노출되기를 꺼려하셨다.

자신들이 받고 있는 노동의 대가에 대해 받는 입장으로서는 그저 만족할 수 밖에 없는 어떤 방법이나 지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기억 된다

나 역시 설문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노동인권에 대해 무지했음을 알게 되었다. 무지해서 말 할 수 없었고 방법을 잘 몰라 행동하지 못하고 혼자서 용기를 내기란 더욱 어려운 것 같다.

노동인권에 대해 영상물 제작 상영이 되고 교육프로그램이 생겨서 홍보가 많이 되어 인식의 전환이 생겼음 좋겠고 자발적으로 간담회에 많이 참여하여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부의 불균형이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재정되어 낮은 곳으로 고루 분포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설문지를 받아들고 막상 어디로 가야할지 대상자를 만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까이에서 뵈는 아파트 경비아저씨를 찾아가 설문하는 취지를 설명 드리니 흔쾌히 맘을 열어주셔서 자신감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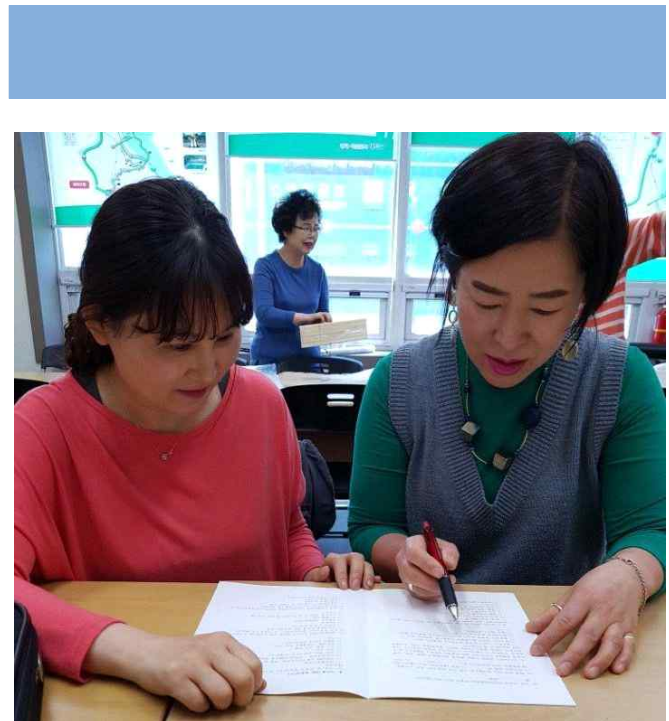
## 2. 활동사진

### <사전 조사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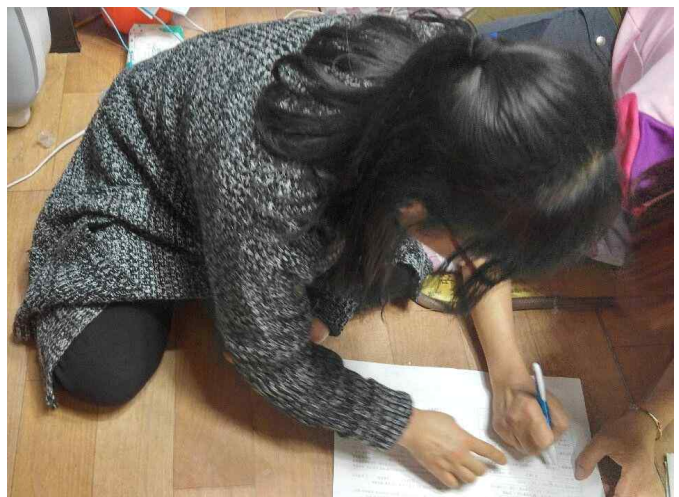
<조사원설문조사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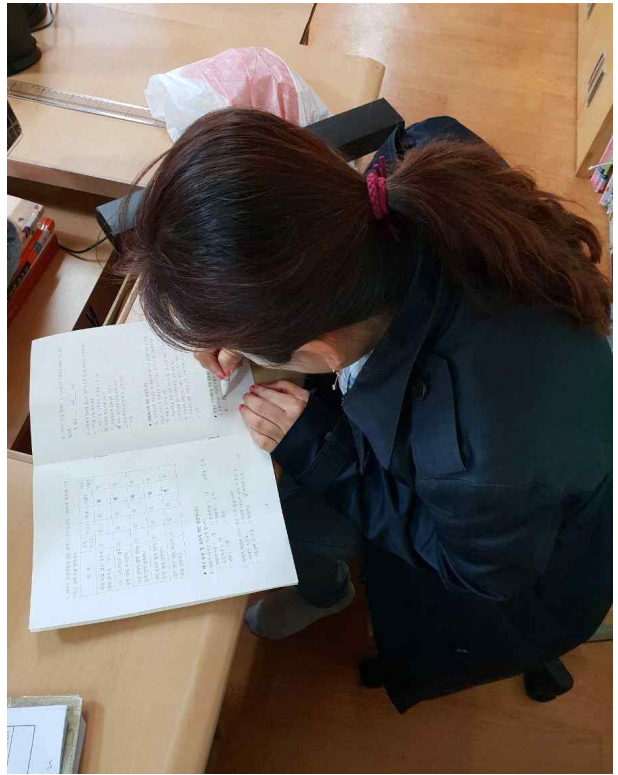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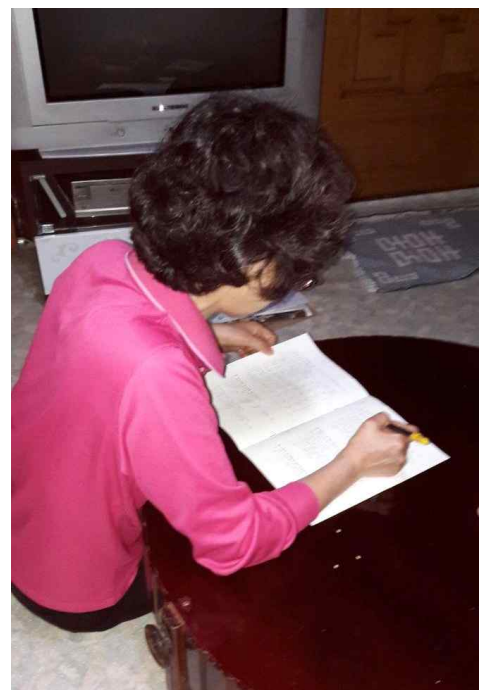


<조사원설문조사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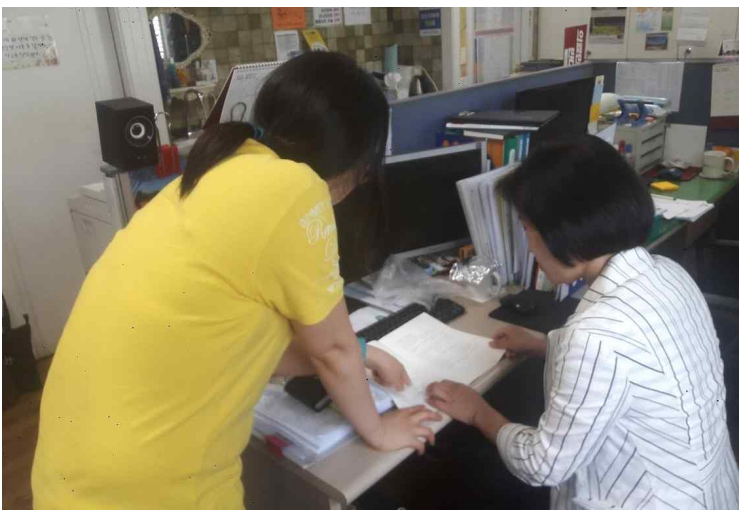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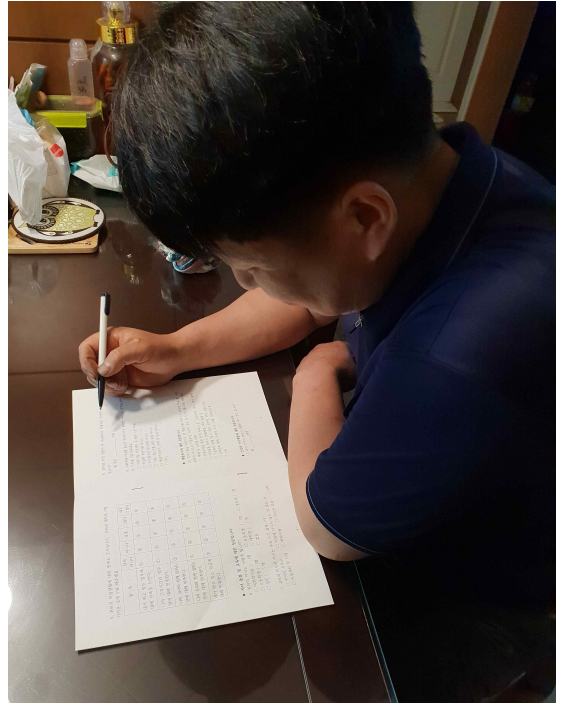




<조사원설문조사활동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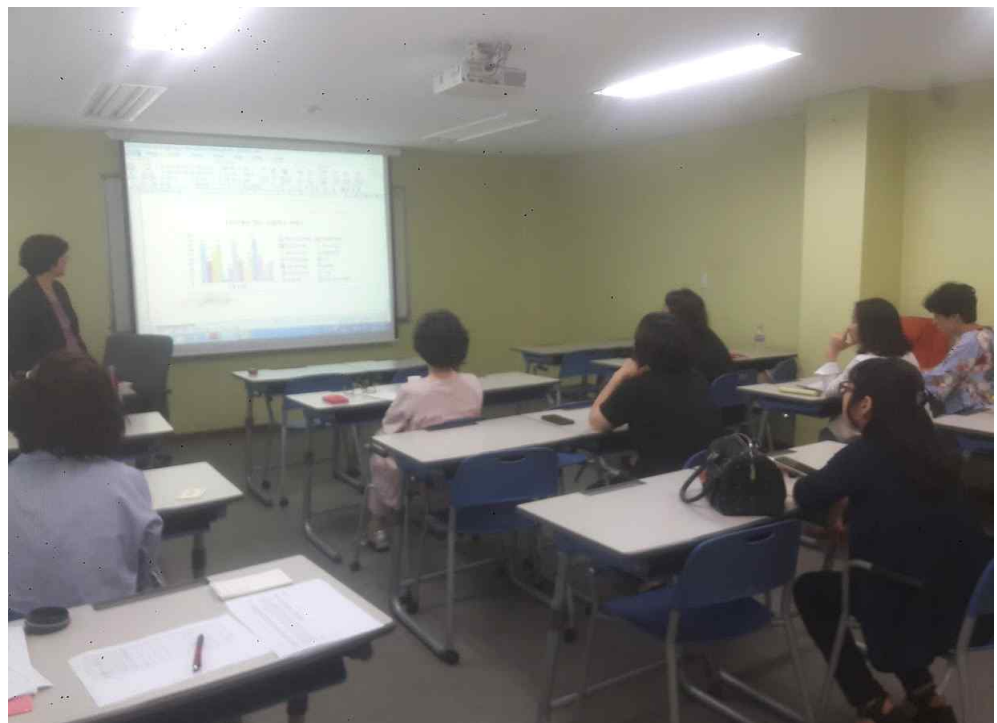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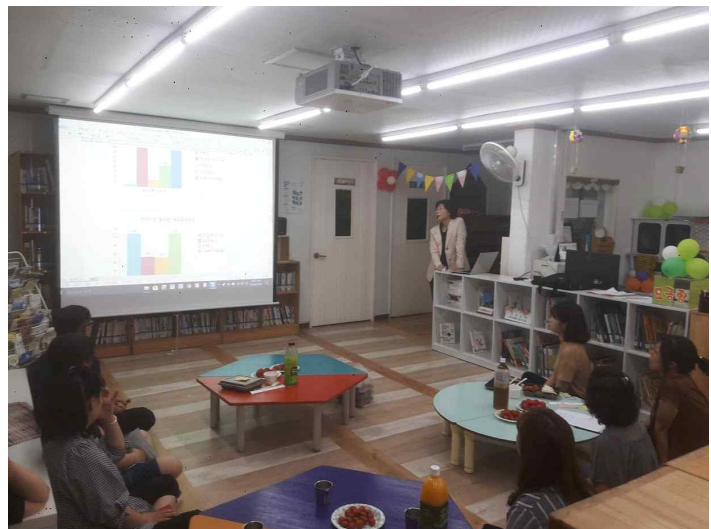


<조사원설문조사활동사진>

<설문조사 결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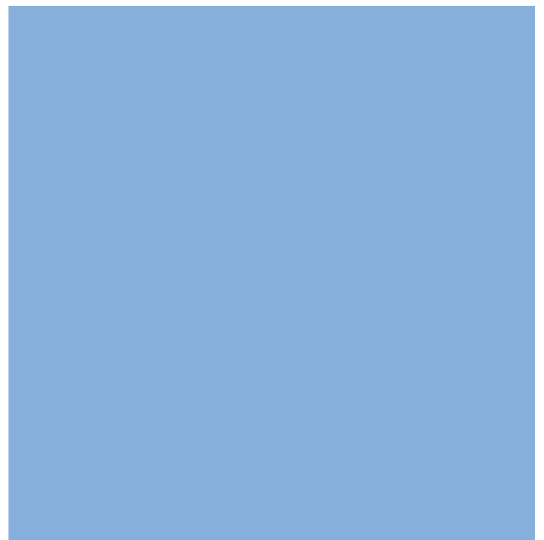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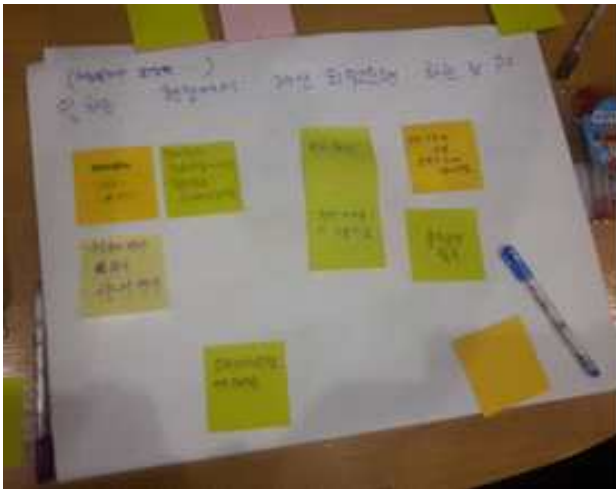


# <간담회 모습>





<간담회 모습>





<간담회 모습>







34912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대전도시공사 3층

홈페이지 <http://www.djiw.or.kr>

전화) 042-345-2569      팩스) 042-345-2568

이메일 [djcwsc@gmail.com](mailto:djcwsc@gmail.com)      상담전화 : 1566-2569